

제35주년

인천5.3민주항쟁 학술토론회

일시 : 2021년 4월 30일(금) 14시

장소 :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3층 교육실

주최 :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 추진위원회

제35주년

인천5.3민주항쟁 학술토론회

일시 : 2021. 4. 30.(금) 14시

장소 :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3층 교육실)

좌 장 이우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발제 1. 인천5.3민주항쟁 현장 상황 분석
- 김창수(인하대 초빙교수)

2. 인천5.3민주항쟁 자료 해체 및 향후 과제
- 이재성(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김중성(인천5.3민주항쟁 참가자)
송용한(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실장)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 추진위원회

(문의 : 032-862-5353)

목 차

[발제1] 인천5·3민주항쟁 현장 상황 분석 김창수 (인하대학교 초빙 교수)	5
[토론1] 김종성 (인천5·3민주항쟁 참가자)	23
[발제2] 인천5·3민주항쟁 자료 해제 및 향후 과제 이재성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연구위원)	27
[토론2] 송용한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실장)	47
[참고자료]	52

발제1

인천5.3민주항쟁 현장 상황 분석

김창수(인하대 초빙교수)

인천5.3민주항쟁 현장 상황

김 창 수 (인하대 초빙교수)

I. 머리말

올해는 인천5.3민주항쟁 35주년이 되는 해이다. 인천5.3민주항쟁은 민통련과 인사연, 민민학련, 서노련, 인노련 등의 민주화운동 단체를 비롯한 인천시민 5만여명이 신민당 개헌헌판식이 열리는 1986년 5월 3일, 오전부터 오후 10시까지 옛 시민회관사거리를 중심으로 주안역, 제물포역, 동인천 일대에서 군부독재 퇴진, 민주헌법 제정 등의 민주화 조치와 신군부 집권 연장책인 이원집정체와 보수대타협 비판, 노동3권보장 등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1만명의 진압경찰과 대치하면서 전개한 민주화운동이었다. 광주5월항쟁을 계승하고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인천5.3민주항쟁의 뚜렷한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와 시민사회에서는 인천5.3민주항쟁의 계승과 기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8년 8월, 「인천광역시 민주화 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인천5.3민주항쟁을 인천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였으며, 민주화운동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미래지향적 민주주의 교육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여전히 민주항쟁이 아닌 '5·3사태'로, 인천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로 기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중의 하나는 아직까지 인천5.3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적용대상에 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법 2조에 의하면 '민주화운동'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5.3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의 목적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정의규정에 누락 상태에 있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이 발의중이다.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온당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전두환 정권이 자행한 공안조작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우고 있다는 점이다. 5.3항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대부분은 전두환 정권이 들쭉날쭉한 과격과 폭력, 분열의 이미지에서 기인한 것이다.

민주화운동 진영 일부에서도 5·3 민주항쟁이 전두환 정권의 공안통치를 초래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었지만 주로 구호의 대중성이나 집회 진행상의 혼선과 같은 내재적 평가에 해당하며 집회의 목적이나 의의를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 전두환 정권은 이 집회를 좌경적인 폭력집회로 몰아 민주화운동세력에 타격을 가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보수야당을 재야 민주화운동 세력과 분리하여, 안정적 정권 이양이 가능한 개헌안을 관철하려 했다.

언론의 보도도 인천5.3민주항쟁의 성격을 고정시켰다. 5월 3일 저녁 7시부터 언론은 시위대를 좌경 폭력세력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했다. 당시 문화공보부, 안기부에서 내린 '보도지침'에 따라 이날 저녁 7시부터 KBS TV를 비롯한 방송들은 화염에 휩싸인 민정당 지구당사와 거리에 가득한 최루

탄 분말, 깨진 보도블록과 전경을 구타하는 장면을 반복해 방송하며 5·3시위를 ‘폭력 난동’이라고 보도했다.¹⁾ 그리고 시위대의 반미 주장 등을 문제 삼아 5·3시위를 좌경 용공세력의 체제전복 기도라고 매도했다. 신문들도 5·3시위를 “격렬 구호 충돌 시가 수라장” “인천 시위 조종주동 32명 수배”(『동아일보』 1986. 5. 4), “인천 사태 민민투·민통련이 주도” “급진학생 과격 재야가 소요 유도” “인천사태 민민투·민통련이 주도, 민중봉기 유발 노려”(『한국일보』 1986. 5. 20~23)27),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것도”(『중앙일보』1986. 5. 5)라고 “인천의 과격시위 배후 가려져야”(『경인일보』, 5월5일자), “좌익정체 드러낸 인천사태”(『경향신문』, 5월 5일자), “급진세력의 폭력은 민주화에 역행한다”(『동아일보』,5월5일자), “사회존립 위협하는 좌익난동의 실체”(『서울신문』,5월 6일자) 보도하며 ‘소요’로 규정하고 과격성을 집중 부각하거나 용공혐의까지 제기했다. 당시 언론은 천편일률적으로 인천5·3민주항쟁을 ‘좌경, 용공 세력의 체제 전복 기도’라는 공안 당국의 주장을 여과없이 기사 제목화하였으며, 시위의 성격을 안기부의 주장과 동일하게 ‘소요’라고 규정한 신문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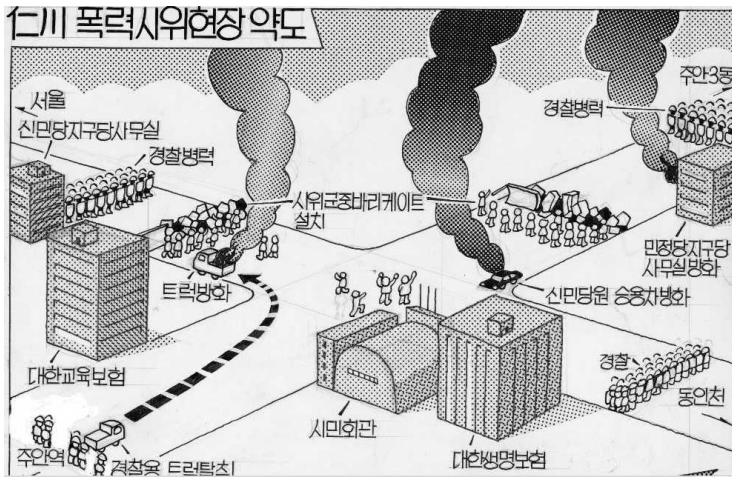
언론사별	보도 제목 및 내용	비고
KBS TV (86.5.3)	‘폭력 난동’ 좌경 용공세력의 체제전복 기도	
『동아일보』(‘86.5.5)	“급진세력의 폭력은 민주화에 역행한다”	
『한국일보』(‘86.5.20~23)	“급진학생 과격 재야가 소요 유도” “인천사태 민민투·민통련이 주도, 민중봉기 유발 노려”	
『중앙일보』(‘86.5.5)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것도”	
『경향신문』(‘86.5.5)	“좌익정체 드러낸 인천사태”	
『경인일보』(‘86.5.5)	“인천의 과격시위 배후 가려져야”	
『서울신문』(‘86.5.6)	“사회존립 위협하는 좌익난동의 실체”	

본고는 인천5·3민주항쟁 당시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의 사실성을 검증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인천5·3민주항쟁 참가자의 구술 증언을 종합하고, 각종 언론 보도내용 및 경찰측의 수사 자료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시간대별 상황일지를 사실에 가깝게 재구성해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자료는 휘발성이 높은 기억, 그것도 30여년 전의 기억에 의존하는 증언이라는 점과 5·3항쟁을 반체제 범죄로 규정한 공안당국의 범죄 수사 기록이라는 점에서 다른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두 자료를 교차검증함으로써 당시의 시위 전개 양상을 정리하고 항목별로 자료와 증언을 보충한다면 사실에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작업에서 특히 사실과 사실의 전후 관계, 맥락(context)을 주목하려 한다. 사실(fact)은 기본적으로는 시간상, 공간상 실재하는 것으로 발견되는 존재, 또는 사건을 의미한다. 실제적, 경험적, 개체적인 것으로 환상, 허구, 가능성, 필연성, 당위성 등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환상, 허구와 구분되며 자체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있을 법한 일' 혹은 '있어야 할 일'의 의미를 지니는 '진실(truth)'와 구분된다. 개별 사실들이 논리적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라도 선행하는 사건들의 맥락에서 파악되지 않으면 왜곡되기 쉽다.

물론 5·3민주항쟁이 당시 상황과 개별 사건에 대한 분석이나 재구성과 무관하게 민주화운동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5·3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명문화되는 것보다도 무관하게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이다.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 기본 원리가 침해당하고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

1) 당시 정부는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을 통해 5·3항쟁과 관련 ‘보도지침’을 5월 3일부터 5월29일까지 6회 이상 각 신문에 하달하였고 언론들은 이 지침에 의거하여 보도 형식과 내용을 조정했다.

력으로 저항할 권리는 헌법의 정신이다. 우리 헌법 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의 집권연장음모를 폭로하고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고 위기에 처한 기층민중들의 생존권을 요구했던 5.3항쟁은 저항권의 실천이며 민주화운동의 일환인 것이다. 다만 5.3항쟁의 역사적 성격과 별도로 이 운동에 대한 왜곡되고 정형화된 이미지로 인한 운동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는 사실과 다르거나 맥락에 대한 검토가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시위대의 폭력성만 과도하게 강조하였을 뿐 최루탄 가스차의 돌진이나 최루탄 운반차의 난입과 같은 경찰 측의 원인제공 사실을 함께 다룬 기사는 거의 없었다. 경찰의 배치나 진압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거의 없었다.



「인천 폭력시위 현장 약도」 경향신문

II. 인천5·3민주항쟁 상황

□ 국내 정치 상황

인천 5.3항쟁 당시의 한국의 정치지형은 매우 민감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85년 2.12 총선에서 직선제 개헌을 내건 신민당이 제1야당이 되면서 직선제 개헌이 86년 국면에서 최대의 정치현안이 되었다. 2·12총선 1주년을 맞은 86년 2월12일 신민당과, 재야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민주화 추진협의회(민주협)가 1천만명 개헌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정국을 주고하고 있었다. 직선제를 허용할 수 없는 전두환 정권은 신민당과 민주협을 재야세력과 분리시키고 3당 대표회의 형태의 협의기구를 통한 제도내 개헌 논의를 제안하며 재집권을 획책하고 있었다. '86년 4월 28일에 서울대학교 전방입소반대시위에서 김세진, 이재호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다음날인 4월 29일 신민당 이민우 총재와 민주협이 김대중과 민통련의 문익환 목사는 야권공동기구인 '민국련' 회의를 열고 "소수 학생들의 반미, 용공, 과격 시위를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뒤이어 4월 30일 3당대표회담에서 전두환은 임기내 개헌 의사를 밝히고 신한민주당은 가두서명과 시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회담후 이민우 총재는 "좌익학생들을 단호히 다스려야 하며 민주화운동에 이런 사람들이 끼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자 김세진 이재호의 죽음으로 분노한 학생운동 세력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재

야세력 일부도 전두환 정권과 타협하고 있다는 의혹이 퍼져갔다. 이튿날 민통련은 29일의 '민국련' 성명내용을 부인하고 이민우 총재의 좌익학생 배제 발언을 비판하는 한편 야권연락기구인 '민국련'에서 탈퇴할 것과 수습책으로 민통련 집행부 총사퇴를 발표했다. 일련의 사태로 인한 보수야당과 재야단체에 대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진영의 불신은 5.3민주항쟁 현장에서 신민당에 대한 강한 비판 구호, 그리고 학생과 노동자들이 민통련의 연좌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의 가두 시위를 벌이는 양상 등으로 나타났다.

① 5.3민주항쟁 개요

5.3항쟁 전날인 5.2일에는 민통련 관계자들은 인천으로 와서 최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민통련과 인사연 관계자들은 다음날 시위에 필요한 유인물이나 플래카드와 준비물들을 시민회관 인근의 주안1동성당로 옮겨 보관해두었다.

경기도경찰국은 5월2일 저녁 9시부터 5월 3일 새벽 5시까지, 3,759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5.3대비 인천 일원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숙박업소 1,053개소를 포함한 1,271개소의 장소를 뒤지고, 시위용품 81종 1,240점의 물품을 압수했다.²⁾ 또 경기도경은 자체병력 35개중대 4,690명,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타 시도에서 지원인력 45개중대 6,030명, 계 80개 중대 10,720명을 오전 9시에 시민회관 주변 주요 지점을 에워싸고 진압 작전을 준비했다.

신민당은 '개헌 추진 인천·경기지부결성대회' 및 현판식을 5월 3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민통련과 재야단체가 시위를 시작하기도 전에 충돌의 전조는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 5월 3일 오전, 신민당원과 당직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시민회관 마당에 나와서 개헌 현판식을 준비하거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은 행사 직전에도 시민회관 인근인 주안1동성당 일대를 검문실시, 주안역과 제물포역 승객에 대한 검문검색, 시민회관 광장에 모범운전자와 정복경찰 배치 등으로 신민당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었으며, 신민당은 방송을 통해 경찰이 대회장 2km 밖으로 물러날 것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경찰은 행사장 100~200m 내외까지 근접한 압박 배치를 변경하지 않았다.³⁾

재야단체의 시위는 12시 정각에 시작되었다. 주안1동성당에서 민통련 회원등 200여명과 40여명의 인노련 회원들은 각각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확성기를 설치한 리어카로 시위를 시작했다. 시민회관 네거리에서 시위가 시작되면서 주변에 운집해 있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시위대는 곧 2천여명 규모로 불어 났으며, 민통련 주도의 집회가 시작될 무렵인 13시 경에는 4천여명으로 늘어났다.

오후 1시 20분경, 민정당사 앞 신기촌 방향의 경찰이 시위대와 공방을 벌이던 중 운집중인 수천명의 시위군중을 향해 다연발 최루탄 무차별 발사했다. 최루탄 난사로 여러 명이 파편에 부상당하는 사고로 이어지자 이에 격분한 2,000여명의 시위대는 경찰과 투석전으로 벌이며 민정당사를 공격했다.⁴⁾ 이 과정에서 민정당 제1지구당 화재가 발생하고 경찰이 시위대에 잠시 고립되는 일이 발생했다.⁵⁾

오후 3시 45분경, 신기촌 방향의 경찰이 최루탄 가스차를 앞세우고 시민회관 4거리 부근까지 급전진하였다가 시위대에 의해 진압차량이 포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오후 4시 30분경에는 시위대

2)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고』(내무부, 5.19)p.41

3)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28)

4) 경찰의 과잉대응이 시위대를 자극하고 격렬한 투석과 화염병 공격으로 이어졌다는 증언이 많다.

5) 『선봉』4호 (86.5.13)

한가운데로 경찰의 최루탄 운반용 트럭이 돌진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 최루탄 운반차는 신기촌 쪽에서 출발하여 본래 경인상가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최루탄을 보급할 예정이었다. 석암 4거리에서 진압부대의 후방으로 접근해야 할 차량이 주안역 대로의 시위대 가운데로 진입하여 시위대에 접거된 사건이다.

오후 5시 20분경, 신민당 홍사덕 대변인 ‘경찰 방해로’ 개헌 현판식 무기 연기를 발표하고, 김영삼 고문등 신민당의원들은 현장에서 철수했다. 민통련 200명의 시위대는 철야시위를 결의하고, 2,000명 시위대는 시가행진하며 대열을 정비했다. 신민당 개헌현판식이 무기 연기된 이후 시위대와 경찰은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최루탄 발사와 투석전이 계속됐다.

오후 6시 20분경 경기도경은 시민회관 사거리의 네 방향에서 진압부대를 일시에 투입하여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해산된 시위대는 주안역, 제물포역, 수봉공원입구, 부천역, 동인천역으로 옮겨 시위를 계속하다가⁶⁾ 오후 10시경 10시간에 걸친 5·3 당일의 항쟁은 종료되었다.⁷⁾

② 5월2일의 준비 상황

○5월2일 오후: 민통련 관계자들은 대회 전날 인천 자유공원에서 집결하였다가 고잔동 성당으로 이동하여 최종 점검회의를 개최하다. 인사연 회원 7,8명은 삼정동성당(이상득 신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민통련 및 산하단체 플래카드 등 10일간 제작한 시위용품을 주안1동성당 지하실로 운반하다.

○5월2일 23:00 민통련 홍보국장 박계동, 총무국 간사 이달원과 함께 『광주는 지금도 계획되고 있다』는 제하의 소책자는 500부, 『민중헌법을 우리 힘으로』 제하의 소책자는 3,000부, 행사용 유인물 2만부, 민통련 보관 중인 유인물 등을 라면박스에 포장하여 22:30분경 서울에서 주안5동성당으로 옮겼다가 5월 3일 오전 6시 주안1동성당으로 옮기다.

○5월 2일 저녁, 김지선(인노련 사무국장) 인노련이 제작한 유인물과 플래카드 등의 시위용품을 주안1동성당 옆 골목 삼원섬유 동료 노동자였던 임선미 가옥에 은닉하다.

○5월 2일 21:00 경기도경 오후 9시부터 5월 3일 새벽 5시까지, 3,759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5.3대비 인천 일원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하다. 숙박업소 1,053개소를 포함한 1,271개소의 장소를 검색하였고, 유인물, 화염병을 비롯한 시위용품 81종 1,240점의 물품을 압수하다.⁸⁾ 당시 시위용품을 준비해온 인사연 사회부장 권병기 외 3인은 대회 준비 관계로 귀가하지 못해 삼정동 성당 인근 여관 투숙 중 5월3일 새벽 1시 예비검문을 받고 부천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오후 5시에 풀려나다.⁹⁾

시간	내 용	비고
오후	민통련 관계자 자유공원 집결후 고잔동 성당으로 이동하여 최종 점검회의 개최	
저녁	인노련 제작 시위용품 주안1동성당 옆 민가(임선미 가(家) 화단에 은닉	
22:30	민통련 행사용 유인물 소책자 주안5동성당 보관, 3일 06시 주안1동성당지하로 이동	
21:00~	경기도경 인천 일원 일제 검문검색 (1,271개소 수색)	

6) 서울로 귀가중인 문미숙, 송민정 외 20명은 부천역전 시위를 시도하다가 연행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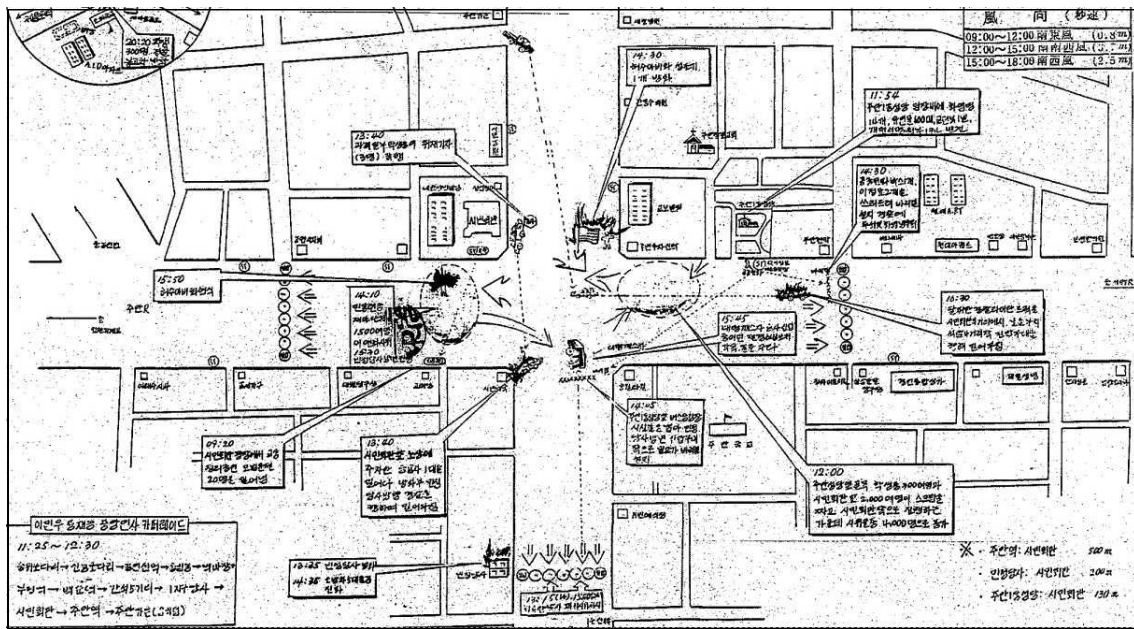
7) 대검,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결과보고」(1986.5.19.), 경기도경 「실황조사서」(5.28) 등 참조

8) 「5.3인천소요사건진상보고」(내무부, 5.19)p.41

9) 인천5.3민주항쟁 증언록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제30주년 인천5.3민주항쟁 계승대회 조직위원회, 2016)

3 5월 3일 현장 상황

○09:00, 경기도경찰국은 자체병력 35개중대 4,690명,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타 시도에서 지원인력 45개중대 6,030명, 계 80개 중대 10,720명을 오전 9시에 배치하여 주요 지점에서 검문검색을 하면서 진압 작전을 준비하다. 도경은 효과적 ‘진압’을 위해 시민회관 주변에 총 34개 중대를 배치하였는데 시민회관 남쪽 신기촌 방향은 수원경찰서장이 지휘하는 7개중대, 제물포역으로 가는 시민회관 서쪽에는 남양주서장 지휘 8개 중대, 석바위 방향 시민회관 동쪽에는 안양서장과 여주서장이 지휘하는 10개 중대, 주안역 광장에는 부천서장과 광명서장이 지휘하는 9개 중대를 배치하다.



「5.3행사사건 상황도」 경기도경

○09:20, 신민당 명화섭의원 등 당직자 20명 질서유지를 위해 배치된 모범운전자 30여명을 시민회관 광장 밖으로 몰아내고, 신민당 청년당원 60명은 시민회관 광장에 배치된 정북 경찰관의 철수를 강하게 요구하는 등 마찰이 발생하다¹⁰⁾

○10:00, 신민당측이 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진압 경찰관을 행사장 2km 밖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방송을 반복하다.

○10:40, 주안역과 제물포역 검문검색이 과도하다는 연락을 받고 신민당원 100여명이 주안역 제물포역으로 가서 검문검색에 항의하다.

○11:00, 인사련 집행국장 이우재, 편집실장 홍성복 등의 지휘로 민통련 산하단체 20여명 연단용 손수레에 확성기와 마이크 앰프 설치하다.

○11:45, 옥외 방송 행사장 안쪽에 사복경찰관 배치되어 방해공작 펴고 있다고 경고 방송하고 시민회관 앞 상가의 철시를 요구한 인천시에 항의하다.

○11:55, 민현연 200명 주안역 쪽에서 시민회관 광장 도착하다.

10) 주최측이 행사장 근처에서 경찰 병력 퇴거를 강하게 요구하자 인천동부경찰서장은 질서 문란시 의법조치하겠다고 경고로 대응했다.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경기도경)

○12:00, 주안1동성당에 집결해 있던 민통련 산하 단체인 인사연, 민청련, 민불련 회원 500명여 대열을 정비한 다음 시민회관사거리 행진을 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민통련은 시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연좌 집회 형식의 ‘민주화 촉진 인천시민대회’을 개최하다. 장기표 정책실장, 이호웅 인사연 의장, 정동년 등의 간부들이 정치연설을 이어가는 동안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주민주정부를 수립하자’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을 물러가라’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주로 외쳤으며, 14:20분경에는 풍물패를 선두로 행진하며 광주학살 책임지고 미국은 사죄하라! 저임금, 실업 강요하는 재벌정권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하다.

○13:00, 4천여명이 모여 민통련 장기표 정책실장 주도로 시위 시작하다.

-민민학련 주안역 집결후 시위선동 시작 (「민민투위 자술서」)

○13:15, 수원서장 부대의 최루탄 난사한 파편에 학생이 부상당하자 격분한 2,000명의 시위대가 민정당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¹¹⁾(『선봉』)

○13:20, 평화적으로 운집중인 민중들을 향해 다연발 최루탄 무차별 발사했다.

(『민중의 소리』)

○13:35, 민정당사 화재로 전소되다. 민정당사를 지키던 여주 소대가 시위대에 둘러싸여 고립되다.

○13:40, 인노련 회원 40명 주안1동성당 집결하여 “생활임금 쟁취하자”는 플래카드 들고 김종성의 주도로 시위대오 형성하여 시민회관으로 행진하다. 생활임금, 집회자유, 파업자유, 노동3권, 삼민헌법 쟁취하자! 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다.

○13:40 시민회관옆 노상에서 주차한 승용차 1대를 밀어다 방화후 민정당사 방향 경찰을 향하여 밀어붙이다.

○13:45, 수원경찰서장 지휘 4개중대가 최루탄으로 민정당사 진압하고 여주소대 구출하다.

○14:20, 민통련회원등 1,500명 행진, 민중문화운동협의회, 인천 문화패 한광대, 인천간전 학생들이 연합하여 구성한 길놀이패가 행진의 선두에 서다.

○15:45, 신기춘 쪽의 진압경찰 기동1중대 소속 최루탄 개스차(일명 페퍼포그)가 시민회관 4거리 쪽으로 돌진해 들어오자 시위대가 차량을 포위하고 경찰을 끌어내리는 사고가 일어난다. 당황한 개스차가 급히 후진하는 과정에서 후방에 있던 경찰이 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다.

○16:30, 경찰 최루탄 운반 트럭이 주안 시민회관 앞 시위현장에 돌진하였다가 시위대에 포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으며 일부 시위대는 차량에 돌과 화염병으로 공격하고 석바위쪽 경찰 쪽으로 차량을 밀어내다. 이 과정에서 트럭 적재함의 방수천 덮개가 불타다.

○17:20, 신민당 홍사덕 대변인 대회 무기 연기 발표하다. 민통련 200명의 시위대 가 철야시위를 결의하고, 2,000명 시위대는 시가행진하며 대열을 정비하다.

○17:30, 시위군중 2,000명 민정당사 쪽 진압부대와 대치하며 투석, 화염병 투척하다. 신민당 김영삼 고문 등 당소속 의원 승용차편으로 서울로 돌아가다.

○17:40, 경기도경은 34개 중대를 시민회관 사거리의 세 방향에서 진압부대를 일시에 투입하여 시위대를 해산시키다.

11)『선봉』4호 (86.5.13)

④ 시민회관 진압 이후 (18:00~22:00)

○18:10, 시민회관내 신민당원 2천여명 만세 삼창후 해산하다.

○18:15, 1,000여명의 시위대는 주안역 쪽으로 이동하여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시위를 계속하다. 주안역 앞 100, 주안역앞 계단 200명, 제일연탄 앞 300명이 시위를 계속했으며 주안1동 파출소, 법원4거리 방향 산발 시위를 이어 가다.

-부천경찰서장 지휘 5개중대와 남양주서장 지휘 4개 중대, 광명서장 지휘 4개 중대를 투입 주안역 일대의 시위대를 해산시키다.

○19:04, 제물포역앞 300여명이 시위하다. 동인천역 앞(연좌), 용덕마루 화평교 축현초교 주안 5.6공단 시위가 이어지고 오후7시30분, 동암역에서 시위가 이어지다¹²⁾

○20:00,인노련 회원 200여명 석바위에 집결하여 해산 집회하다.

○20:20, 도화초등학교 앞 도화4거리 시위대 300명이 교통초소에 투석하고 인천동부서 기동대 봉고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여 전소시키다.

○21:00, 서울로 귀가중인 문미숙, 송민정 외 20명 부천역전 시위를 시도하다가 대구서구방순대에 연행되다.(『진행』)

○21:40, 중구 경동 4거리 동인천 방향 시위대 200명 차도에 재집결 시위를 벌이자 남양주서장 인천서장 진압 인천 시내 상황이 종료되다.

Ⅲ. 주요 상황

□ 신민당원과 경찰의 충돌

신민당은 개헌 추진 인천·경기지부결성대회 및 현판식을 5월 3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할 예정이었다. 민통련과 재야단체의 시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충돌의 전조는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 5월 3일 오전, 신민당원과 당직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시민회관 마당에 나와서 개헌 현판식을 준비하거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은 행사 직전에도 시민회관 인근인 주안1동성당 일대를 검문실시, 주안역과 제물포역 검문검색, 시민회관 광장에 모범운전자와 정복경찰 배치 등으로 신민당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었으며 신민당은 경찰이 대회장 2km 밖으로 물러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최근 경찰 측 자료인 「실황조사서」에서 확인되었다.¹³⁾ 학생운동단체와 노동운동 단체가 본격적 시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행사 주최측과 경찰간 심각한 충돌이 발생한 것은 경찰이 시위현장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자극하여 평화시위를 어렵게 만들고 5.3항쟁을 격화시킨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 민정당사 화재

민정당 남구지구당 화재는 이 사건의 맥락은 소개되지 않고 학생들의 폭력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로만 활용되었다. 동부경찰서에서는 박종문과 이상명, 이용주 학생을 검거하여 민정당사 방화범

12) 경인일보, 5월5일자 보도

13)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28)

이라고 자백할 때까지 구타와 가혹행위를 했다. 경찰은 ‘돌맹이 소지, 투석’을 인정할 것, 투석했던 돌(50개, 100개) 숫자에 ○표하기, 자민투민민투에 ○표하기, 배후를 댈 것 등 미리 쓸 내용을 불러주고 그대로 쓰기를 강요했으며 거부할 경우는 또 다시 고문을 반복했다.¹⁴⁾ 그런데 민정당사 앞의 공방에서 경찰의 과잉대응이 시위대를 자극하고 격렬한 투석과 화염병 공격으로 이어졌다는 증언이 많다. 오후 1시 20분을 전후하여 민정당사 앞 신기촌 방향을 맡고 있던 수원서장 부대가 최루탄을 난사하면서 파편에 학생들이 부상당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평화적으로 운집중인 민중들을 향해 다연발 최루탄 무차별 발사하여.『민중의 소리』 이에 격분한 2,000 여명의 시위대가 민정당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¹⁵⁾(『선봉』) 개헌현판식 개최 1시간 전 일찍부터 모여든 1만여 시민들이 자발적이 평화적인 시위를 전개하자 인파는 더욱 늘어만 갔다. 이에 당황한 경찰은 시위대열에 무차별하게 최루탄을 쏘아대며 시민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한편 고의로 시위대열과의 충돌을 유도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경찰은 주안1동성당과 신기촌 방향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위대와 대치했다. 교보생명 건물에 본부를 설치하고 시위대를 교란하고 때로는 과격행동을 유발했다. 신민당 개헌추진본부의 인천사태(고문) 보고서 (1차)도 특수부대가 시위를 교란시키고 시위대열을 와해시키는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¹⁶⁾

□ 경찰 가스차와 최루탄 운반차의 돌진 사태

경찰은 15:45경 수원서장이 담당하고 있던 신기촌 방향의 시위대가 늘어나면서 시위가 격화되자 진압차량을 앞세우고 시민회관 4거리 부근까지 전진하였다가 시위대에 의해 진압차량이 포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전경, 사복1명, 진압복장 전경2명이 시위대에 고립되자 수원서장 부대는 SY44탄 발사와 동시 사복부대(8중대) 투입 시위폭행자 검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진압부대 사복경찰 가운데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이 사태에 대해서 경찰은 개스차 진입이 신민당 간부들이 시민회관 행사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진입하였다고 「질의 예상답변자료」에서 해명하고 있지만 가스차의 돌진은 학생운동세력의 반민정당 정서와 민정당사 방어에 실패한 수원서장 부대의 공격적 진압 방식이 빚어낸 사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후 4시 30분경에는 시위 현장에 경찰의 최루탄 운반차가 돌진한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시위대가 “주안역에 500m 떨어진 곳에 주차중이던 경찰의 최루탄 운반차를 탈취하여 적재중이던 최루탄 50상자를 뺏고 적재함에 종이를 쌓아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인채 석바위 경인상가 쪽으로 밀고 가 차량일부를 태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최루탄 운반차는 신기촌 쪽에서 출발하여 본래 경인상가 앞에서 대치하고 있던 여주경찰서와 안양경찰서 중대에 최루탄을 보급할 예정이었다. 석암 4거리에서 진압부대의 후방으로 접근해야 했는데 주안역 대로의 시위대 가운데로 스스로 진입하여 시위대에 점거된 것이다.

14) 민주화운동기념관 Open Archives

15)『선봉』4호 (86.5.13)

16)신민당 개헌추진본부 인천지부, 인천사태(고문)보고서(1차) (인천: 1986. 6. 13).

IV. 사실과 맥락

□경기도경 점거 계획

경찰의 이른바 '경기도경 점거 기도설'은 5·3 항쟁의 폭력성과 극렬 좌경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왜곡 사례 중의 하나였다. 밤 10시 동인천에서 집회를 개최한 학생들이 심야에 수원까지 이동하여 경기도경을 '점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시위 후 연행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계획할 수는 있으나 다수의 학생들이 심야에 수원으로 이동하여 경비가 철저한 도경찰국을 점거하는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¹⁷⁾ 당시 전두환 정권은 시위사건에 소요죄를 적용하기 위해 민민학련의 소속 학생들이 5·3일 자정무렵을 기하여 경기도경을 점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23:00~24:00 동인천역으로 진출하여 군중대회를 개최한 후 경기도경을 점거기로 했다"는 것이다.¹⁸⁾ 이같은 계획은 학생들의 진술에 의거한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민민학련의 시위 참가 목적이 자신들이 정립한 민족민주변혁을 선전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도경점거는 개연성이 전혀 없는 계획이다. 민민학련은 5·3항쟁 4일 전인 1986년 4월 29일에 결성된 조직이다. 민민학련이 동·서·남·북부 평의회 소속 10여 대학에 적극 참여를 권유한 것은 이 집회를 "민족민주주의 조직 이념을 소속학생과 경인지역의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과 공유하고" 노학연대의 기초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다.¹⁹⁾ 실제로 시위현장에서 주로 제창한 구호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제국주의 축출하자, 일당 7천원 쟁취하자!, 파업자유 쟁취하자!등의 구호가 중심이었다²⁰⁾

□ 경찰차량의 시위 현장 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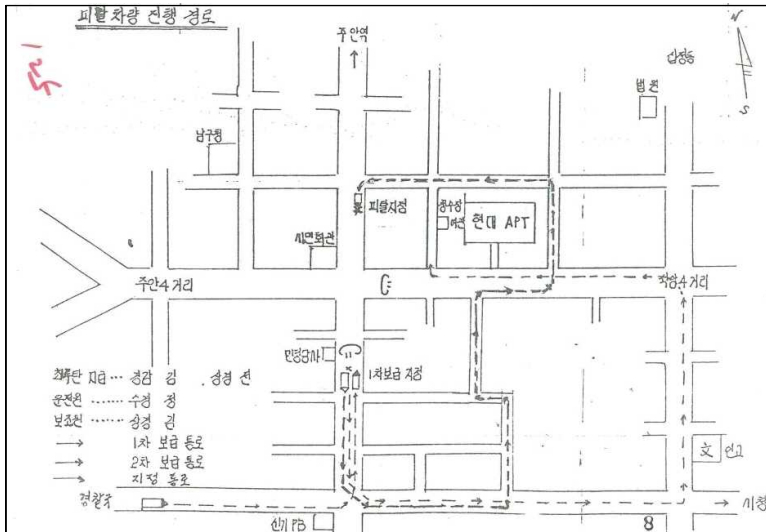
경찰은 집회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전국 경찰 1만여명을 동원하여 행사장 공간을 최소화하며 압박해왔다. 신민당 측에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가를 위해 경찰이 시민회관 2km 밖으로 물러날 것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시민회관 4거리에서 2~300m 안으로 진압경찰을 배치하여 시위대를 자극하였다. 시위대와외의 공방전에서 엄청난 양의 최루탄을 발사하여 시위대 해산 후 시민회관 4거리의 아스팔트에는 최루탄 가루로 뒤덮여 있었다. 5·3항쟁 당시 집회 현장 한 가운데로 최루탄 가스차량과 최루탄 운반트럭이 1시간 간격으로 돌진하는 의문의 사태가 발생했다. 차량 돌진 사태로 시위대가 차량을 점거하거나 방화를 시도하는 등의 충돌이 격화되었기 때문의 경찰측의 의도적 도발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을 '경찰트럭 탈취 방화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5·3항쟁의 과격성을 부각하는 대표적 사례로 이용해왔다. 언론도 돌진 사태의 원인 규명은 도외시키고 충돌장면만 편집하여 시위대의 과격성을 극적으로 부각하는 자료로 삼았다. 그러나 두 사건의 원인이 의도적 도발이 아닌 과실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해도 경찰측이 사태 악화의 원인 제공자이므로 '경찰트럭 난입사건', '최루탄차 돌진 사건'으로 불려야 마땅하며 이에 관한 증언채록 및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17) 「5·3인천민중항쟁을 왜곡하지 말라」(민주 통일민중운동연합, 1986.3.19.)

18) 「인천소요사건 진상보고」(내무부) 및 「인천소요사건 중간수자발표」(대검찰청, 1886.6.19.)

19) 「연세대 민민투 5·3참가 배경」(김OO,백OO 진술서)

20) 「연세대 민민투 5·3참가 배경」(김OO,백OO 진술서)



최루탄운반트럭 들진 경로 출처: 경기도경 수사상황보고

□ 국가 기구의 폭력, 고문가혹행위

경찰은 인천5·3민주항쟁 현장에서 약 400명을 연행해갔다. 이들은 인천경찰서, 동부경찰서, 부평경찰서에 분산 수용한 다음 조사를 진행했다. 관련자의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은 고문과 구타 등의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선(인노련 부위원장 겸 사무국장)은 5.3직후 수배자 검거에 나선 대공과 형사들이 야간인데도 산으로 끌려가서 얼굴에 두건 씌우고 수갑 채운 상태에서 집단 구타하는 등의 고문을 5시간 넘게 계속했다고 한다. 권오광(인노련 회원)은 수배자로 5월 8일에 연행됐는데, 처음에 구속된 사람들은 많이 심하게 구타당해 얼굴이 부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현경(아남전기 노동자)은 오후 5시 30분경 주안역 담장을 넘다가 연행되었는데, 전경 숙소에서 50~60명의 여성들 상대로 가혹행위, 무릎을 꿇리고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각목으로 구타하는 등 한 두명의 전경이 교대로 24시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가혹행위를 계속했다고 한다. 윤현수(인천기독청년협의회(EYC) 회장)는 인천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3일간 잠안재우기 고문을 당했으며 구타당하는 소리가 들리는 공포분위기 속에서 조사받았다고 한다. 이같은 인권탄압에 대한 피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증언록』)

■참고문헌 및 자료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5·3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이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8)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다시보는 5·3인천항쟁」(팸플렛)
- 송정로(2008). 『인천시민사회운동 20년사』. 명문미디어아트팩.
- 신명순 편(2018).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 서울: 한울.
- 이국운(2017). “87년 체제를 극복할 새로운 정치의 모색”. 『황해문화』 여름호.
- 이준한(2014). 인천의 5.3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 28주년 기념토론회.
-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2006). 『5·3에서 미래로』. 다인아트.
-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5·3민주항쟁에서 6월민주항쟁으로」(팸플렛)
-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5·3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 인천5·3민주항쟁28주년 기념토론회, 2014
-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 5·3민주항쟁 30년을 되돌아보다』(30주년기념심포지엄2016)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18)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활동보고 자료집(2017).
- 인천5·3민주항쟁 증언록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제30주년 인천5.3민주항쟁 계승대회 조직위원회, 2016)
- 「신민당인천행사진행상황」(경기도경, 1986.5.3.)
- 『실황조사서』(경기도경, 5.28)

■부록1 인천5.3민주항쟁 시간대별 상황표 21)

시간	내용	비고
09:00	신한민주당 집회 안내방송 시작	신민당방송
09:20	신민당 청년당원 60명 시민회관 광장 배치 정복 경찰관 철수 요청	신민당 항의
10:00	경찰관 행사장 2km 밖 철수 요청 방송 (충돌우려 제기)	신민당 항의
10:40	신민당원 100여명 주안역 제물포역 이동하여 경찰 검문검색에 강한 항의	신민당 항의
11:54	주안1동성당앞 경찰 검문조, 화염병14개, 유인물600매, 교련복 1착 수거 “광주학살 자행한 군사독재정권 타도,국사독재 몰아내어 민주헌법 쟁취하자” 구호 방송시작	검색압수 신민당 방송

12:00	주안1동성당에서 민통련 회원등 200명, 플래카드, 화성기 달린 리어카로 시위 시작 , 시민회관 네거리 시위출발, 시민회관 건너편 학생 300명, 대회장 주변 2천명 -주안역앞 300명 시위군중 20개의 플래카드, “인천을 해방구로” 행진시작	민통련 시위 민민투 시위
13:00	대회장 주변 4천명 민통련 장기표 정책실장 주도로 시위 시작	장기표 연설
13:15	시위대 2천명 민정당사 진입 시도, 투석, 화염병 투척 35분경 민정당사 화재로 전소 (여주소대 민정당사 고립) /13:26, 경찰 사과탄 5발 투척	민정당 공격 사과탄투척
13:40	시위군중 200명, 노상주차 신민당원 차량 방화전소 -시민회관 앞 근로자 200명 유인물 2천매 살포시위 -학생800명시민회관 사거리 스크럼시위 돌고 화염병 투척/13:35, 경찰 최루탄발사	당원차량전소 투석전 격화 최루탄발사
13:45	수원서장 지휘 진압부대 4개중대, 최루탄 사용 민정당사 진압, 여주 소대 구출	민정당사진압
14:05	시위대 시민회관 소방호스로 대회장 살수, 주안성당앞 버스승강장 쓰러뜨리고 화염병 투척 하며 민정당사 앞 바리케이트 설치	바리케이트1
14:20	민통련회원 100명의 선도로 1500명 풍물패 선두 유인물 배포	풍물패 행진
14:25	민통련 장기표 ‘구속자 석방’ 구호 외치면서 시위	장기표 연설
15:30	-주안초등 건너편 시위대 200명, 시내버스 안내판, 공중전화박스 쓰러뜨려 바리케이트 설치 돌고 화염병 투척. -민통련 회원 등 1,000명 교보빌딩 앞 “속지말자 신민당” 플래카드 들고 성조기와 군사독재 화형식 개최 (광주학살 책임지고 미국은 물러가라,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김영삼과 김대중이 벌이고 있는 개헌운동 중지하라) -15:45. 시위대, 경기 기동8중대 소속 가스차 포위, 기동 8중대장 김윤옥 경감 등 10명 부상	바리케이트2 가스차 포위
16:30	시민회관 북쪽 시민화원 앞 100명의 시위군중이 경찰 최루탄 운반용 타이탄 트럭 탈취 후 불을 붙여 안양서장 지휘 진압부대로 밀어 붙임 17:10분 차량 회수	타이탄 탈취

21)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28) 기초자료

시간	내 용 : 경기도경찰국, 「실황조사서」(5.28) 기초자료	비고
17:20	홍사덕 대변인 대회 무기 연기 발표 -민통련 200명 등 시위대 철야시위 결의, 시위대 2000명 시가행진 대열 정비 -17:30, 시위군중 2,000명 민정당사 진압부대 향해 투석, 화염병 투척 -17:30, 김영삼 고문등 당소속 의원 승용차편으로 상경	현판식연기 시가행진 투석전격화
17:40	경기도경 3개방향에서 34개 중대 투입 진압 작전 전개, 시위군중 주력 분산, 1,000여명 주안역 앞으로 이동하며 버스승강대 2개로 바리케이트 설치 투석전	바리케이트3
18:15	-주안역 앞 100, 주안역앞 계단 200명, 제일연탄 300명 시위 계속 -주안1동 파출소, 법원4거리 방향 산발 시위 부천서장지휘5개중대, 남양주서장 지휘 4개중대, 광명서장 지휘 4개중대 각각 투입 진압	주안역 시위
19:04	체물포,앞 시위 / 동인천역 앞(연좌), 용덕마루 화평교 축현초교 주안 5,6공단 시위 -19:30, 동암역 시위 ²²⁾	체물포역시위
20:00	서울 귀가중인 문미숙, 송민정 외 20명 부천역전 시위	부천역전시위
20:20	도화초등학교 앞 도화4거리 시위대 300명, 교통초소 투석, 인천동부서 기동대차량 방화전소	도화초등시위
21:40	중구 경동 4거리 동인천 방향 시위대 200명 차도 재집결 시위 - 남양주서장 인천서장 진압 인천시내 상황종료	동인천시위

■부록2 참가 주체 분석 자료

○경찰 추산 시간대별 시위 참가 인원

일시	인원(명)	구 성	비고
12:00-13:00	8,000	장내 2,000 시위군중 4,000 일반 2,000	시위 시작
13:00-14:00	12,000	장내 2,000 시위군중 6,000 일반 4,000	
14:00-15:00	12,000	장내 2,000 시위군중 6,000 일반 4,000	
15:00-16:00	9,000	장내 2,000 시위군중 5,000 일반 2,000	
16:00-17:00	8,000	장내 2,000 시위군중 4,000 일반 2,000	
17:00-17:40	8,000	장내 2,000 시위군중 4,000 일반 2,000	시위 진압

「신민당 인천행사 진행상황」(경기도경찰국. 1986.5.3.)

22) 경인일보, 5월5일자 보도

○참여인원: 총 5만명 추산²³⁾_김영곤

구분	주요 단체	인원 (명)	비고(경찰)
재야	민통련(전국지역협,민청련), 인사연	1,000	700
노동자	인노련, JOC,기노련,서노련 등 수도권 노동자	3,000	300
학생	민민학련(민민투), 자민투	4,000	3,000
정당	신한민주당 당원	2,000	
시민	인천시민 (당시 남구, 중구 구민 중심)	40,000	
소계		50,000	4,000

○ 학생운동 단체

인하대와 인천대는 인사연과 연락하며 대회에 참가하였고 서울시내의 대학은 참가 결의를 하고 인천으로 집결했다. 당시 조직적으로 참가한 대학은 인하대, 인천대를 비롯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숭전대,고대, 장신대, 중앙대, 외국어대 등으로 약 4,000명의 시위대오를 형성했다. 참가 학생들은 대체로 민민투(민민학련)와 자민투로 나뉘어 시위에 참가했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민민학련은 시민회관 남쪽 신기촌 방향을 맡아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했다.²⁴⁾

민민학련의 정식명칭은 전국 반제반파쇼 민족민주투쟁학생연맹(AIAF NDSF)으로 한국사회의 주요 모순을 예측자본과 민중간의 모순이라고 보는 정치적 경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전국 각대학에 설치된 민민투위의 전국연합조직이었다. 민민학련은 집회를 “광주학살원흉처단, 미제처단과 헌재회의 쟁취를 위한 범민중결기대회”으로 결정하고 서울 서부지역평의회 대학(연세대, 서강대, 이대 등), 남부지역평의회 대학(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등), 동부지역평의회(고려대, 외대, 경희대 등), 북부지역 평의회(성균관대 등)에 속한 10개 대학 2,000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민민투는 시민회관에서 출발하여 석바위, 제물포를 거쳐 저녁 10시경 동인천으로 이어지는 4차 집회까지 계획대로 개최하고 해산했다.

○노동운동 단체

시위에 참여한 노동운동단체로는 인천지역노동자연맹, 서울노동운동연합, 인천기독교노동자연맹이었다. 인노련에서 집회를 준비한 간부와 회원들은 주안1동성당에 집결하였다가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시민회관 사거리로 진출하였다. 노동자들은 주안역에서 주안1동 성당 앞쪽에서 시위하였으며 “군사독재 타도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생활임금 쟁취하자!” “8시간 노동제 쟁취하자!” “파업자유 쟁취하자!” “박영진의 원수를 갚자!” “폭력경찰 때려잡자!” “노동해방 쟁취하자!” “노동자의 손으로

23) 경찰은 극렬시위대 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언론

24) 권오광(인노련)은 자민투는 미제축출이 주된 구호였고.. 신기촌 사거리에서 경찰청까지 계속 행진하면서 세를 구축해 하나의 집회공간을 확보하려고 시도했으며 민민투는 주안사거리와 도화사거리로 가서 진을 치고 경찰과 대치했다. 『증언록』

삼반정권 타도하자!”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삼민헌법 쟁취!”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검거연행자 소속단체별 구분

민통련	민민투	자민투	EYC	민청련	민불연	인사연	인노련	계
5	41	2	2	1	4	9	7	71

‘시위가담 불순단체’ 「5.3사건종합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찰국(5.20)

○총학생회장 및 핵심 간부 직접 인천시위 참가 지시 대학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숭전대, 고려대, 장신대, 인하대, 인천대, 중앙대, 외대
 학교별: 수도권 총 24개 대학 (필자주:이화여대, 성심여대, 안동대생 참가)

○ 직업별

학생	노동자	재수생	회사원	제적생	신민당원	무직	기타	계
248	23	10	3	14	3	37	31	369

○ ‘극렬시위자’(4,000여명)

민통련	서울지역학생	인천지역학생	인사연 EYC	문제노동자	계
400	2,000	1,000	300	300	4,000

‘극렬시위자’ 「5.3인천시위관련자 수사상황 보고」 경기도경찰국(5.8)

토론1

김중성(인천5.3민주항쟁 참가자)

5.3 민주항쟁과 노동자 투쟁

김중성

(현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최초 제안자이자 상무이사)

5.3 민주 항쟁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할 수 있으나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의 일원이자 5.3투쟁 당시 이를 주도했던 당사자 중의 한사람으로써 5.3 투쟁을 소위 재야 민주화운동이나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절차적 민주주의 운동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서 민중 주도의 특히 노동자 중심의 관점에서 이를 재해석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5.3 민주항쟁을 노동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퇴색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 광주항쟁 이후 투쟁의 흐름이 변혁운동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는 도도한 역사적 흐름이 있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전두환 일당의 파쇼적인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김대중 김영삼으로 대표되는 소위 의회민주주의 운동만으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당시 학생운동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학생운동의 흐름이 노동현장으로의 소위 위장취업(양심취업)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당시 학생운동 출신의 노동현장 투입은 공공연하게 만연해 있었다. 이들이 1986년 5.3을 전후로해서 민주노조운동의 흐름을 이루게 되었고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로 이어지게 된다. 5.3 인천 민주항쟁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투쟁이다.

한국 전쟁 이후 조직된 노동자운동은 맥이 끊기다시피 했다. 지식인 중심의 상층부 운동은 간간이 있어 왔지만, 노동자와 민중 이념에 입각한 투쟁흐름이 대중적인 기반으로까지 넓어져서 퍼지게 된 것은 없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5.3 투쟁의 노동자 중심의 부대였던 인노련 서노련은 노동자 조직운동의 새로운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아래로부터 조직으로까지 표출된 노동자운동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회적 투쟁이 운동의 연속성을 상실하면 이후에 이에 대한 해석은 빛을 잃게 된다. 당시 운동의 중심부에 있었던 이들은 대부분 제도권내로 흡수되어 당시 그들이 가졌던 이념이 유실되어버렸다. 5.3 당시 노동자 조직으로 결집된 투쟁은 당시 좀 설익기는 했지만 삼

민헌법 쟁취라는 구호로 나오게 되었다. 운동의 단절이 없었다면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권력을 새롭게 재편하는 운동으로 명맥이 이어졌을 것이고, 아마도 5.3 인천 민주 항쟁은 노동자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재해석 되었을 것이다.

한편 1986년 노동자들이 5.3 투쟁에 가담하면서 이후 우리사회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점을 보자. 이는 이미 많은 이들이 다루어 놓았고 이에대한 해석 또한 일정하게 합의되어 있는 듯 하다. 여기에는 5.3 투쟁이 1987년 노동자 대 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5.3 투쟁과 1987 노동자 대투쟁과 그리고 6.10이라는 분출구로 표출되는 투쟁과 어떻게 맞물리느냐 하는 점은 해석이 다를 수 있다.

5.3 투쟁이후 노동운동권은 사상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소위 강철서신이 나돌면서 인노련 서노련의 운동이 이 노선으로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 이후 조직 노동자 운동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면서 5.3 투쟁 이후는 각개약진하는 투쟁 양상을 거친다. 이것이 1987 6월 항쟁과는 긴밀한 연관성은 없어 보이는 이유이다.

한편 87년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노조운동은 대부분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는 경제투쟁에 머물게 되는데, 권력에 대한 퇴진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회사내의 투쟁에 머무는 경향에서도 정치투쟁을 지도할 조직지도부가 부재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파쇼적 철권통치로부터 대중들은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이 경제투쟁을 실행에 옮기게 한 시발점이 1986년을 전후로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운동이고 철권 통치에도 굴하지 않고 권력에 맞선 5.3인천투쟁이 어떤 영감을 주지 않았을까하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

철지난 이념으로 치부되어버릴 수도 있지만 어떤 이념이든지 거리에서의 권력과의 한판 승부는 새로운 제도와 기반을 탄생시키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리 투쟁은 권력을 견제하고 새로운 대안을 가져올 수 있는 동력이 된다. 현 시대를 AI시대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로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하려는 시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지만, 근육(뇌, 팔다리)을 쓰는 근로 민중이 없이는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하는 자의 관점에서 세상 변화에 대한 해석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그럼 점에서 보면 5.3 투쟁은 민중에 의해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운동 중 하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발제2

인천5.3민주항쟁 자료 해제 및 향후 과제

이재성(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인천5.3민주항쟁 관련 자료 해제 및 향후 과제

이재성(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역사가들 사이에서 ‘자료가 스스로 말하게 하라’는 격언이 있지만, 사실 ‘자료’는 그 자료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 따라서 앞의 격언은 ‘해석’을 배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해석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자료를 이용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격언으로 들린다.

보통 ‘1차 자료’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담고 있고, 연구자의 연구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자료를 말한다.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 등은 상대적으로 분명한 1차 자료에 해당되고, 신문 기사나 선전물은 경우에 따라 1차 자료가 되기도 하고 2차 자료가 되기도 한다. 정기간행물도 그 내용에 따라 1차 자료가 되기도 하고, 2차 자료가 되기도 한다. 즉, 자료 자체가 복합적인 성격의 여러 가지 텍스트의 혼합물로서 ‘편집’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보다 세밀하게 나누어 분석해야 한다. 1차 자료라고 해서 그 내용이 전부 진실인 것도 아니다.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만 해도 서로 다른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각 개인이나 각 기관의 진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으며,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가 완전히 진실인 것도 아니다.

학술 논문은 복합적인 텍스트의 혼합물이다. 연구자의 관심, 이론적인 요소, 1차 자료의 발굴, 2차 자료에 대한 비평 등이 혼재되어 있다. 학술 연구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그리고 전체 사회가 그 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생산된 텍스트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는 많은 학술적 연구가 축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해서는 아직 학술논문이 많지 않은 편이다.¹⁾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논문²⁾이 유일하지만, 그조차 기존의 2차 자료들을 중심으로, 인용된 1차 자료를 재구성하여 60쪽으로 정리한 보고서에 그치고 있다. 국내학술지 소논문으로는 이준한의 “인천의 5.3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인천학연구』 21권, 2014), 김영곤의 “5.3 인천민주화운동과 노동자의 역할”(『인천학연구』 6권, 2007), 종합지 비평문으로 서중석의 “5.3인천사태 평가”(『황해문화』 91권, 2016), 이한수의 “인천 5.3항쟁과 노동소설 [함께 가자 우리]”, 『작가들』 57권, 2016) 등이 있다. 이외의 자료는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서 주최한 기념토론회 또는 심포지엄 발표문들이며, 사실 이준한, 서중석 등의 글도 기관의 기념행사 발표문을 투고한 것이다.

당연하게도 이 논문과 발표문, 토론문 사이에는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대립하는 쟁점들도 있다. 학술적인 관심에서 보면 우선 인천5.3민주항쟁과 관련한 여러 논의들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고 어떤 불일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중에서 먼저 규명되어야 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연구

1)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에 대한 학술논문도 정대화의 “민주화 과정에서 민통련과 국민운동본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 역사구조적 관점에서 주체 형성의 문제를 중심으로”(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5), 이명식의 “한국의 민주화 세력, 어디로 가고 있나?: 민통련 운동의 전개과정과 평가”(기억과 전망 12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가 있을 뿐이고, 기록학 분야에서 윤혜선·정연경의 “생산자 중심의 단체기록물 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기록학연구 64권, 기록학회, 2020)와 이 논문의 기초가 된 윤혜선의 석사논문이 있을 뿐이다. 기록학의 관점에서조차 “민통련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재야 운동 단체이고, 민통련 단체만을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단체의 활동상과 시대적 의미, 한계 등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63쪽).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인사연)에 대한 학술논문은 전혀 검색되지 않았다.

2) 최중훈, [1986년 인천5.3항쟁의 전개와 의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를 해 나가는 것이 순서이다. 반면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하는 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역사를 어떻게 기념하는 것이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족한 연구 성과라는 현실적 제약과 한계 속에서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성과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며, 그런 의미에서 <제35주년 인천5.3민주항쟁 학술토론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에서 검색한 인천5.3민주항쟁 관련 자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인천지방경찰청 이관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료에 대해 하나하나 해제를 작성해 나가야 하겠으나, 자료가 방대하여 짧은 시간에 제한된 원고 속에 모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글은 기존의 민주화운동사의 공식 저술로서 『한국민주화운동사3』에서 다루고 있는 ‘인천 5.3항쟁’ 내용을 한 축으로 하고, 그동안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서 진행해 온 토론회와 심포지엄 내용의 총 정리된 내용으로서 김창수의 “인천5.3민주항쟁의 성격과 위상”³⁾의 내용을 다른 한 축으로 하여, 그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관련성이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료들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해 보았다.

2. 자료 해제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소장 자료

(1) 개요

○ 총 82건의 문서 자료와 58건의 사진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그 중에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기증한 자료가 17건, 수감된 문익환 목사와 주고받은 ‘전보’ 등 박용길 장로가 기증한 자료가 21건이다. 민통련 관련 자료는 6건이고, 유인물류는 대부분 ‘생산자 미상’으로 되어 있다(총 19건). 사진 자료는 53건이 경향신문사의 보도사진이고, 나머지 4건도 외신기자 정태원의 사진이다. 1건만이 박용수(민통련 보도실장)의 사진이다.

○ 구술 아카이브에는 총 7건의 인터뷰 자료가 있다. 장기표(2건), 이우재, 이명식, 이광철, 김종철, 최용석 등.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에 없는 다량의 구술 자료들이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 인천5.3민주항쟁 증언록』(제30주년 인천5.3민주항쟁계승대회조직위원회 편, 2016)에 실려 있다.

(2) 특징

○ 사진 자료는 대부분 주안 시민회관 앞 가두시위의 사진이다. 주안역이나 석바위, 제물포역이나 동인천역으로 확대된 시위 사진은 없다.

○ 문서 자료는 ① 성명서와 호소문, 탄원서 등 구속자의 인권과 관련된 문서 ② 운동단체들이 내부 토론이나 투쟁평가를 위해 작성한 문서 ③ 유인물과 유인물 분석 자료 등이 대부분이다. 내용적으로는 ①번 유형의 문서를 제외하고 ②번, ③번 유형의 문서들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생산자 ‘미상’으로 되어

3) 김창수, “인천5.3민주항쟁의 성격과 위상”, [인천5.3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공동 주최, 2020년 12월 15일

있는 문서들을 제대로 생산자 확인을 하고,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에서 검색되지 않은 사진 자료들이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 인천5.3민주항쟁 증언록』(제30주년 인천5.3민주항쟁계승대회조직위원회 편, 2016)에 실려 있다. 출처 정보는 적혀있지 않다.

- 구술자료에서 증언자마다의 경험과 평가는 매우 다양한 용어와 표현으로 생생하게 표출된다. 문헌 자료들에서 보이는 평가의 차이보다 구술 자료들 사이에 드러나는 간극이 훨씬 더 크다. 그만큼 인천5.3민주항쟁이 다른 민주화운동 사건보다 더 복잡한 성격을 갖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함을 의미하며, 그런 만큼 인천5.3민주항쟁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민주화운동 역사 속의 더욱 본질적인 의미가 남다를 것임을 알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는 아니지만 하나의 매우 인상적인 증언 사례를 살펴본다면, 인천5.3민주항쟁 참여자가 조직적 평가를 하는 집회 외중에 부천경찰서 문귀동 경감 성고문 사건 소식을 접한 증언자가 당시에 그 투쟁에 결합하는 것을 반대했었음을 반성하는 대목이다.

- “이어서 자유발언을 하는 도중에 한 친구가 와서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 눈물로 알리며 호소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동참해 달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 당시에 상당히 계급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서 참여를 거부하고 돌려보냈어요. 그 때 발언했던 주역이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두고두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 중의 하나예요.”(『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 인천5.3민주항쟁 증언록』 259쪽)

2) 인천지방경찰청/국가기록원 제공 자료

(1) 개요

- 본격적인 해제 작성과 연구를 위해서는 1차 자료 실물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글은 우선 원본을 디지털화한 pdf 파일만 검토하였다. 총 **21개의 파일**이 있고, 전체 페이지 수는 **3,174쪽**이다. 자료 생산자는 대부분 경기도경찰국, 경기도경수사과이다. 그리고 일부분 부천경찰서, 인천동부경찰서, 부평경찰서, 부평경찰서 등의 수사 자료이다. **극히 드물게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안기부 인천분실, 내무부 치안본부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 역설적으로 경찰의 수사자료는 인천5.3민주항쟁에 관한 가장 체계적인 자료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체 민중운동, 민주화운동 진영을 탄압하려 했던 전두환 정권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방대하고 치밀한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단기간에 엄청난 분량의 기록물이 생산되었다. 총 2,642쪽의 문서 중에는 검거자 명단이나 면담 조사 기록 등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철’로 묶여 있는 중에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문헌들도 발견된다.

- 2번 파일 자료(DA1431857 5.3사태2) 71쪽 이하에는 “민민투 등 용공지하조직 수사계획 하달”이라는 제목의 내무부 치안본부장 명의의 공문이 첨부되어 있고, 이 공문은 1986년 5월 1일 자료 되어 있다. 검거대상자는 총 38명으로서, 당국은 “최근 국가전복기도, 반미 등 극열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민민투’ 등 **용공지하조직**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였고, ‘정보, 수사, 대공 합동전담 수사반’을 구성하여, 모든 범죄에 최우선하여 수사활동을 전개할 것과, 5월 31일까지 모두 검거

할 것을 지시했다(75쪽). 수사본부장은 1일 2회(조/석) 수사회의로 추진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방대한 분량의 경찰 측 조사 문건들이 생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 많은 자료 중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발신인이 '안기부 인천분실장'으로, 수신인이 도경국장과 인천지검장으로 되어 있는 '전언통신문' 문서(16번 파일 2~4쪽)이다. "5.3 인천소요사태 수사조정"이라는 제목 하에 1. 5.3인천 소요 사태를 계기로 전국에 산재한 좌경 성향 불순단체에 대하여 실상을 규명함에 있어 금번 당 관내에서 구속된 129명을 대상으로 추적 수사를 통해 소요의 배후 지령자와 기타 불순단체 단부 및 연계조직등을 발본 색원 의법처리 차원에서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를 포함하여 여러 문서를 통해서, 당시 민주화운동에 대한 수사를 안기부에서 수사 방향 등 기본방침과 세밀한 수사 착안 사항, 수사 대상자들의 구속 또는 훈방 여부까지 검찰과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⁴⁾

(2) 답변 자료 두 건

- 주목할 만한 자료는 인천5.3민주항쟁 수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외적으로 수사 당국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답변자료' 두 개다. 하나는 "질의 예상답변 자료: 5.3사태관련"(파일번호 2번 1쪽 ~ 38쪽)이고, 다른 하나는 "23개항에 대한 답변자료: 인천사태관련"(파일번호 14번, 1쪽 ~ 51쪽)이라는 문서이다.⁵⁾ 이들 자료에는 수사 당국의 논리, 해석, 고문 사실에 대한 반박 등 '국가'의 입장에서 바라본 인천5.3민주항쟁이 묘사되어 있다.

가) 2번 파일 자료(DA1431857 5.3사태2)는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측이 됨. 주로 검거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임.⁶⁾ ▲ 경찰이 폭력시위를 유도한 것이라거나, 고문을 하였다거나, 최루탄 수송 트럭을 일부러 시위대 쪽으로 보냈다거나 하는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함. 고문에 대해서는 "책임 감독자와 조사요원을 선발 철저한 교양을 반복 실시하므로서 이들 인권에 각별히 유의토록 하였음"이라고 주장하고, 연행된 범법자들이 대부분 ▲ 20세를 전후한 청소년 학생층인 점 ▲ 시위현장에서 그들 범행이 채증된 점 ▲ 집단적 공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들어 "범증이 뚜렷한 현행범으로서 그들의 자술이나 진술이 극히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루어 졌으며, 따라서 경찰이 그들의 자백 등을 강요한 필요가 없고 더욱이 연행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는 일체 없었음"이라고 답변하고 있음.

나) 14번 파일 자료(DA1431870 5.3사태14)는 주로 신민당 의원이나 당원들의 증언에 근거한 치안당국에 대한 여러 항의성 질의에 대해 치안당국이 답변하기 위한 자료로 만들어 졌음. ▲ 먼저 '5.3시위'의 파장과 관련, 그 책임이 치안 당국 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신민당 측과 협의해 가며, 함께 고심하며 대화를 잘 치루도록 신경을 써 왔음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론 자료까지 첨부하였음. ▲ 과도한 검문검색이나 사복경찰 투입, 과격시위 방조 등 의혹에 대해서 치안당국의 작전 계획을 설명하면서 부인하고 있음. ▲ 시민회관 옆 대한생명보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사료소개>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수사, 안기부의 지휘 감독 문서 발견"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318>

5) 14번 파일의 21번 질문에서 '정부당국이 5월 8일까지 인천사태의 전모를 발표한다고 말한 이후 오늘 이제까지 하등의 발표가 없는 것은 여러모로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표현에서 이 질문들이 당국에 전달될 시점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의 색인에는 일자표기에 '1986년 5월 3일'이라고 정리되어 있다. 문서 작성 시점을 하나하나 규명하지 않고 일괄 '5.3자료'로 간주하고 '일자' 항목에 색인 작업을 한 것이다.

6) 2번 파일 자료는 43쪽에 팩스용지로 '주요수배자(장기표) 수사상황 보고' 내용이 첨부되어 있고 팩스용지에 '5월 28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다. 장기표는 5월 24일에 검거되었고, 이 자료에는 조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번 파일 자료의 생산일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이다.

협 빌딩 10층에 현장 지휘소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중범죄 진압 작전의 일환으로 상식적인 것’이며 ‘시위군중을 진압하는 작전상의 관측 개념으로 인식’한다 답함. 부산, 광주, 대구, 대전 행사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운영하였음을 보고. ▲ 과격 시위 조장이나 과격 유인물 배포, 승용차 방화와 민정당사 방화, 그리고 진압 작전 등에서 당국의 공작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답변을 하고 강하게 부인함.

(3) 종합수사보고 자료

- 5월 말에는 수사 당국의 ‘종합수사 결과보고’ 자료가 작성되었다. ▲ 파일번호 1번(DA1431856 5.3사태1)에 “5.3사건 종합수사결과보고”(경기도경찰국, 5월 20일자), ▲ 파일번호 3번(DA1431858 5.3사태3)에 “종합수사보고서:5.3인천폭력시위사건”(경기도경찰국, 5월 5일자), ▲ 파일번호 19번(DA1432050 사태19)에 “5.3사건 종합수사결과보고”(경기도경찰국, 5월 20일자), “5.3사건 종합수사 결과보고”(경기도경찰국, 1986년 5월 16일자), “5.3 시위사건 종합수사상황”(경기도경찰국, 1986년 5월 13일자), “종합수사보고: 5.3인천폭력시위사건”(경기도경찰국, 5월 5일자) 등이 있다. 여기에서 5월 5일자(자료 2건)와 13일자, 16일자 자료를 제외하고 5월 20일자 수사결과보고 자료 두 건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또한 ‘종합결과보고’를 날짜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면, 5월 한 달 동안 수사 당국이 이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처리해 나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4) 참고 자료로 붙인 <표>를 보면서

- 1번에서 19번 파일까지 관리번호가 연속으로 이어지다가, 마지막 21번째 파일(20번 파일)의 관리번호에서 건너 뛴.
- 파일번호 10번이 두 개임. ‘5.3사태 실황조사 10’과 ‘5.3사태 진상보고 10’ 으로, 번호 붙이는 작업에서 오류가 난 것으로 판단됨.
- 파일번호 19번 자료만 보존기간이 ‘30년’으로 되어 있음. 나머지는 모두 ‘준영구’로 분류.

3. 향후 과제

1) 출처 불명의 자료에 대한 확인 작업

- “5.3인천투쟁을 운동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한다”(등록번호 00117511)는 자료는 기증자(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원회)만 확인되어 있을 뿐이다. 본문 내용 검토를 통해 보다 상세한 파악을 할 필요 있다. (이 자료와 마찬가지로 ‘생산자 불명’에 해당하는 자료가 대부분임)
 - “벌써 한 달이 가까이 되어가는 인천투쟁은 날이 갈수록 그 의의와 역할을 새롭게 평가 받고 있다” → 자료 생산 시점이 1986년 5월 말 ~ 6월 초 경이라는 의미.
 - “유인물과 구호 중에는 적의 보안사나 안기부에서 아방을 호도하기 위하여 제작 배포된 것도 수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자료 생산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

2) 198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 진영에서의 다양한 견해와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재 해석할 필요 있다.

(1) 상대적으로 급진적 입장의 그룹 문건

- “’86, ’88의 소시기는 한반도 내 경제적 하부구조의 동요와 민중의 해방열기의 고조, 이를 무마하려는 미제의 반도 내 권력재편기도가 어우러지면서 형성되는 혁명전세의 전술적 고양기로써 상정되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민중의 혁명적 열기는 신민당의 집권욕에서 기인하는 당리당략과는 무관한 것이며 결국에는 신민당 역시 그 반민증성으로 말미암아 타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인천투쟁은 반제반파쇼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 선언이지 단순한 일회용 제스처어는 아니다.” “민중의 반제반파쇼 의식의 고양은 이슈나 슬로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투쟁을 수행하면서 고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 투쟁을 필요로 하고 있는 미제의 이집제 구상과 파쇼와 신민당의 보수대연합구도를 혁파할 수 있는 통일전선을 구축, 투쟁을 전개하면서 반제투쟁으로 전선을 확대, 또는 이동배치할 수 있는 물질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등록번호 00117511)

- “여·야간의 개헌협상은 5.3인천시위에서 노동자·학생·지식인 등 민중운동세력으로부터 ‘개헌솔책과 타협하는 신민당은 각성하라’는 비난을 받았고 (중략) 이에 따라 가뜰이나 침체된 경제와 끊이지 않는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의 항쟁에 시달려온 현 집권세력은 점차 수세적 상황에 몰리며” (중략) “이에 따라 민중 민주화운동도 ‘군부독재 반대투쟁’의 차원을 넘어 ‘반제·반파쇼 투쟁’으로 비약적인 질적 전환을 이룩하였다.”

→ 문건의 생산자(그룹)이 가지고 있던 인식, 용어 사용 방식 등을 드러냄. 이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최대한 정확하게 재구성하고, 그 바탕 위에서 역사적 사건의 풍부한 의미를 최대한 살려내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

(2) 민청련의 입장([민주화의 길] 1986년 12월 18일자; 등록번호 0860102 1번, 2번 파일)

- “특히 85년 6월의 구로연투를 전후하여 기존의 경제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대대적으로 일었던 것은 중대한 발전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앞의 선도정치투쟁론의 흐름을 타면서 지나치게 소아병적 현상을 나타낸 것이 사실이었다. (중략) 보수야당정치세력에 대해서 민족민주운동이 취할 태도는 견제와 견인이라는 두 측면이 병존한다. 어느 측면이 주요한 측면인가의 판단은 시기와 정세인식에 따라 내려야 한다. (중략) 이 시기 민족민주운동이 가지고 있던 정치노선·조직노선·투쟁노선 상의 모든 문제들이 집약적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5.3인천투쟁에서였다.

→ 이 글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우리 운동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5.3인천투쟁이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림. [증언집]에서도 과반 이상의 증언자들이 5.3민주항쟁을 ‘실패’ 또는 ‘한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평가하고 있음.

3) 1980년대 중반 당시 상황에서 민주화운동 세력과 민중운동 세력이 가지고 있던 현실 인식이 역사적으로 타당한 것이었는지 판단할 필요도 있다.

- “4.30회담에서 나온 ‘임기 내 개헌용의’도 현 정권이 결정적으로 물리는 입장에서 나왔다고 보다는 미국의 종용이 배후에서 한몫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중략) “5.3시위에서 나타난 신민

당과 노동자·학생간의 갈등은 '민주화=개혁=정치제도 개선'으로 보는 '친미 성향' 보수양당의 시각과 이들 민중운동세력의 새로운 시각이 정면으로 맞닥뜨린 것이었다.”(등록번호 085914)

- “엄청난 동원력과 치열한 투쟁을 통해 대중들에게 반외세투쟁의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신민당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했으며 군부독재와 미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등록번호 0860102, 2번 파일)

- “김철은 인천에서 등장한 구호들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 나라의 현실을 지적한 구호가 타당성을 갖는지의 여부를 가리기전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태도야말로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다.”(등록번호 00086917)

→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나, 해방 후 한국 정치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이 계속 연구되고 토론될 필요가 있음. 변혁운동의 정당성에 전제가 되었던 변혁이론들에 대해 역사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이론과 이념과의 관계, 이론과 이념의 역할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인식이 가능해 질 것임. 이는 변혁이론의 현재적 의미에 대한 탐구와 진보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진보 정치의 진로를 점검하고, 후속 세대를 교육하며, 향후 전망을 모색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4) 인천5.3투쟁이 전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5.3인천투쟁은 인천 시민의 군부독재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 의지와 민주정부 수립의 열기를 한껏 드높인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민족민주운동세력의 관념적 급진성을 지나치게 표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략) 이러한 정파적 분열상과 운동의 관념성은 같은 해 가을에 일어난 건국대 사태(일명 '애학투' 사건)와 함께 민족민주운동세력에 대한 대탄압의 회오리를 몰고 오는 빌미가 되었다. (중략) 물론 그렇다고는 해도 경제적 토대의 변화와 국민 의식의 성장에 상응하지 못한 정치구조상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으로 보아선 정세가 계속 고양되고 있었으니 다음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거쳐 6월 국민항쟁으로 역사는 치달리고 있었다. (중략) 5.3 인천 투쟁은 실로 40여 년 만에 변혁적 노동운동의 이념이 냉전이데올로기의 두터운 지각을 뚫고 나와 시민을 놀라게 하고 나름대로 사회적 공인을 얻어나가게 한 한판 힘겨룸이자 일대 비약의 자리였다.”(등록번호 043394, 2번 파일)

→ 전체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인천5.3민주항쟁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학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설에 대한 반대 가설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신뢰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긴 과정이라고 생각함. 5.3투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이 성공한 것인지, (또는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5.3투쟁 '때문에' 87년 6월 항쟁으로 나아가게 된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이견들이 있음. 하나하나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으로 정리를 해야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구성할 수 있음.

→ 인천5.3민주항쟁이 하루 동안 전개된 사건이라는 특징이 있음. 그러나 거시적인 민주화운동의 흐름은 1986년 신민당 창당과 총선 승리로부터, 직선제 개혁 운동, 반미운동을 포함한 변혁운동의 대두, 김세진·이재호 분신 사건, 성고문 사건, 건국대 애학투 사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범민주화운동 진영과 독재정권 간의 격동적 대치기였고, 그 가운데 인천5.3민주항쟁을 다름과 동시에, 인천5.3민주항쟁을 통해 다시 그 시기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적

인 고민이 필요함.

→ 정치적·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으로서 '민주노조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민주화운동의 한 과정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인천5.3민주항쟁이 추구했던 가치와 연결해 볼 필요 있음. 인천5.3투쟁의 주역들이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운동 진영의 분열과 정권교체 실패라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음. 인천5.3민주항쟁의 정신은 1987년 민주화 이행과정에 구현되지 못했음. 제도권 야당 세력과 구별되는 운동을 전개한 5.3투쟁이기 때문에, 한국 민주화에 대한 평에서도 국가 차원의 평가와 구별되는, "5.3투쟁 주체들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민주화 이행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필요함.

- 5) 인천과 부천을 아우르는 운동사 연구 및 기념사업이 필요하고, 특히 인천5.3민주항쟁은 수도권과 전국 차원에서, 학생과 노동자, 그리고 재야와 야당까지 모든 민주화운동 주체들이 관여가 되어 있는 사건인 만큼, 인천만의 기념이 아니라 전국적인 범위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 있다.

: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자료의 범주화(주제별)

- (1) 신민당 측 자료
- (2) 신민당 현판식 관련 지역별 조직 자료
- (3) 민통련 측 자료
- (4) 민통련 지역별 조직 자료
- (5) 종교계 자료: 천주교, 개신교, 불교계
- (6) 노동계(서노련, 인노련, 노조 등) 자료
- (7) 인천지역 씨클 활동 자료
- (8) 인사연 자료
- (9) 5.3민주항쟁 이후 벌어진 공안탄압과 성고문 등 국가폭력
- (10) 5.3민주항쟁과 연관된 주요 인사 재판 기록물(예: 문익환 목사 공소장(등록번호 0201315) 등)
- (11) 인천과 연계된 부천지역 민주화운동 자료
- (12) 인천지역 6월 항쟁 자료
- (13) 인천지역 노동자대투쟁 자료
- (14) 이념/정파 활동과 논쟁 자료

● 위와 같은 주제별 범주 아래에 개인, 조직, 활동 연도, 사진, 물건 등 기록관리적 측면에서 추가로 하위 범주가 설정될 수 있다.

- 6) 현재 1차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학술적 연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서 인천5.3민주항쟁과 관련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3투쟁 당시 유인물들이 일부 박스에 보관되어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수장고는 건물 지하에 매우 좁은 공간에 놓여 있고, 다른 기관의 짐도 함께 보관되어 있으며, 천장에 곰팡이도 보

- 7) 많은 운동가들이 87년 6.29 선언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민통련은 8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자,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부정선거투쟁을 벌였다. 민통련은 대선 직접 개입과 투쟁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1988년 1월 중앙위원 전원을 인책하고 국민에게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5.3투쟁의 주체들이 경험한 민주화 이행의 역사이기 때문에, 1987년 체제 변화를 누구 입장에서,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문제는 하나의 동일한 내용으로 정리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이고 있어서 자료 관리나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수장고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장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및 검색, 다운로드 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중요한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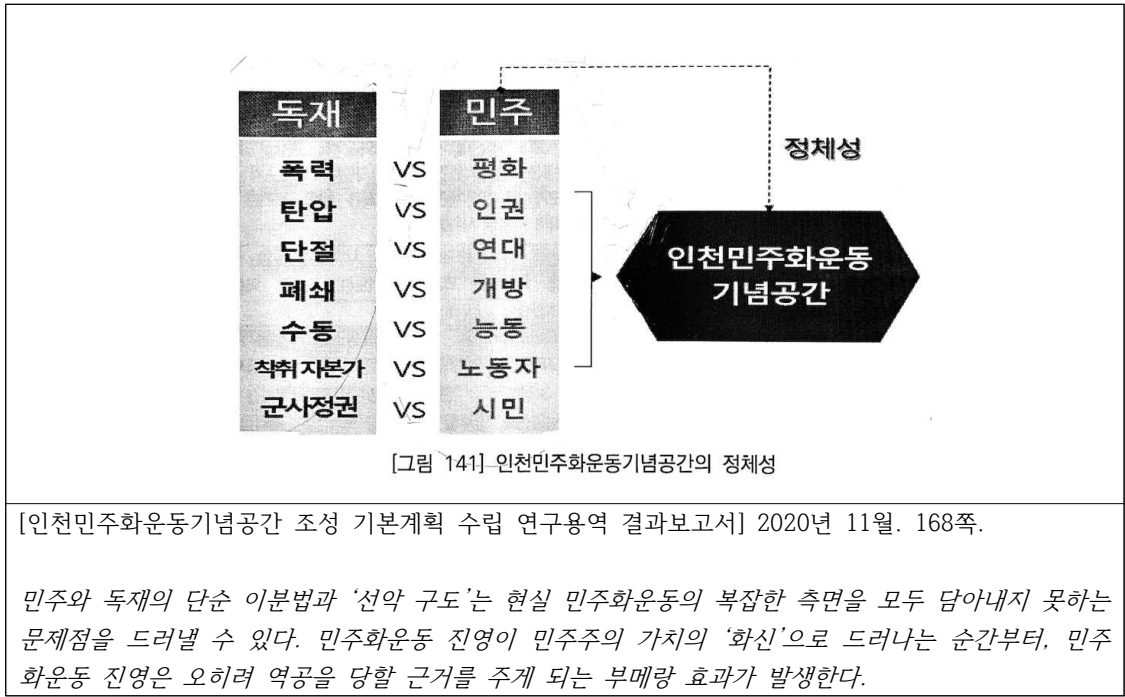
4. 나가며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속담이 있다. 사전적으로는 ‘하찮거나 언짢은 일을 둘러 생각하여 좋게 풀이한다’는 말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때론 긍정적으로 때론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실 역사나 정치야말로 꿈보다 해몽이 중요한 영역이다. 사상과 이념이란 어찌면 역사와 정치, 계급과 권력에 관한 ‘해몽’들을 체계화한 논리들이지도 모른다. 예전에 한 정치인이 방송 토론에 출연하여 “정치는 역사적으로 거짓말로부터 시작했다. 이웃 부족을 침략해서는 ‘나는 신의 자손이다’라며 지배를 정당화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정치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웃으며 ‘정치인들에게 정직을 바라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참석자 모두가 웃었지만 아마 그는 진담으로 한 말이었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좋은 정치’에 대한 인류의 이상이자 희망이다. 하지만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 ‘해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답은 없다. 모두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과제이다. 오늘, 여기,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으며, 그때, 거기, 그들이 열망했던 민주주의와 인권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되돌아보며 되새김질해야 한다.

역사적 평가는 그 주체가 개인이나 집단이나,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당대의 단기적 평가이나 장기적 역사적 평가이나, 지역적/부문적 평가인가 전국적/운동사적 평가인가, 대중적 평가인가 학술적 평가인가 등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도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분류가 필요하며, 그럴 때에야야 국가가 주체가 되는 법과 제도에 근거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정확한 내용과 방법, 그 의미와 한계 등이 명확해 질 수 있다.

민주화운동 진영이 주장했던 논리와 전제들이 언제나 진리일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사는 사건이 벌어지는 당시의 시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대를 전후로 인천 민주화운동의 성장기를 이끌었던 급진적 사회운동 진영의 이론과 이념, 구호와 실천들은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다소 생경하고 거칠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변혁과 혁명을 꿈꾸고 감행했던 당시 20대 청년들의 역사는 지역 차원을 넘어서 전국적인 시민사회/시민운동과 제도 정치권에까지 큰 영향을 주었고, 그 효과는 아직도 강하게 발휘되고 있다.



'인천5.3민주항쟁'은 '변혁운동'과 분리하여 평가될 수 없고, 그것을 제외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지역 기념사업과 향후 계획에는 변혁운동, 소위 급진적 사상운동과 조직운동에 대한 언급이 축소되어 있다. 2021년 현재까지도 한국사회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금기시되는 영역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1986년의 인천5.3민주항쟁은 바로 그러한 금기에 도전하는 투쟁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 기념사업은 인천5.3민주항쟁의 가치를 오히려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역사는 분명히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서술 방식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기록자는 신이 될 수 없고 신의 계시라도 인간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단 하나의 민주화운동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다양한 관점과 시선에서 다시 쓰여져야 하는 것이 바로 역사라고 보아야 맞다. 모든 역사는 논쟁적이다. 오히려 토론과 논쟁을 위해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역사에 대한 토론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열쇠를 찾는 지혜가 생겨날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인천5.3민주항쟁' 관련 문서 자료

등록번호	사료명	분류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기증자
00077992	성명서[5.3사태 진상규명, 과잉진압 책임자 처벌]	문서류>문서	5.3항쟁구속학 생가족대책...	1989.10.11	4	한국기독교사회문 제연구원
00086993	5.3인천시위 구속자 가족의 호소문	문서류>문서	5.3인천시위 구속자 가족	1986.06.12	2	한국기독교사회문 제연구원
00131353	5.3구속자 소식	문서류>문서	5.3구속자가족 협의회	미상	4	한국기독교사회문 제연구원
00086917	'5.3인천민중항쟁'을 왜곡하지 말라-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문서류>문서	민주.통일민중 운동연합	1986.05.19	1	한국기독교사회문 제연구원
00858642	[5.3 투쟁 이후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을 위한 분석 글]	문서류>문서	[미상]	1986.00.00	39	윤미애
00859079	5.3 인천 민중집회 진상규명에 관하여 신민당에 보내는 '서노련'의 결의	문서류>문서	서울노동운동 연합	1986.05.26	2	윤미애
00882550	여론조사[인천5.3사태와 관련]	문서류>문서	[미상]	1986.00.00	1	(재)전태일 재단
00086900	5.3 인권 유인물 분석	문서류>문서	[미상]	미상	3	한국기독교사회문 제연구원
00088299	5.3 인천 유인물 분석	문서류>문서	[미상]	1986.00.00	3	한국기독교사회문 제연구원
00095842	5.3투쟁을 생각하며	문서류>문서	[미상]	미상	29	한국기독교사회문 제연구원
00105353	5.3인천시위사건 관련문서	문서류>문서	[미상]	198*.00.00	3	한국기독교사회문 제연구원
00117511	5.3인천투쟁을 운동 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문서류>문서	[미상]	1986.00.00	2	민주화운동자료관 추진위원...
00154799	서문-5.3 투쟁을 생각하며	문서류>문서	미상	미상	28	한국기독교사회문 제연구원
00162679	5.3투쟁 이후의 투쟁방향성에 대하여	문서류>문서	[미상]	미상	29	한국기독교사회문 제연구원
00213067	5.3 투쟁을 생각하며	문서류>문서	[미상]	198*.00.00	29	민주화운동자료관 추진위원...
00456062	서문-5.3 투쟁을 생각하며	문서류>문서	[미상]	198*.00.00	29	정기영
00845666	(성명서) 5.3 인천 유인물 분석	문서류>문서	[미상]	1986.05.00	3	한국기독교사회문 제연구원
00304119	미국의 사주에 의한 개헌솔책을 폭로한다!!	문서류>문서	의한개헌솔책 폭로5.3노동자 ...	1986.00.00	2	한국가톨릭농민회
00112005	지금시기의 우리들의 전술적 임무에 대하여 _서문 -5.3투쟁을 생각하며-	문서류>문서	[미상]	1986.05.30	30	한국기독교사회문 제연구원
00050667	[고발문-권양이 성고문을 당한 내용]	문서류>문서	고영구의 8명	1986.07.05	2	김춘옥
00063411	서울구치소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집필방해를 즉각 중단하라	문서류>문서	민주·통일민중 운동연합 인...	1986.00.00	1	윤종현
00084955	탄원서[5·3 인천시위 구속자 고문 관련]	문서류>문서	[5·3인천시위 구속자가족...	1986.06.00	17	한국기독교사회문 제연구원
00094265	[군사독재 퇴진 촉구 및 민중민주화운동 탄압 규탄대회서]	문서류>문서	민주·통일민중 운동연합	1986.05.00	2	한국기독교사회문 제연구원
00194322	인사연운동의 반성과 과제	문서류>문서	인천지역사회 운동연합	1987.00.00	13	인천지역해고노동 자협의회
00305949	연합회보 제18호	문서류>정간 물	명동천주교회 청년단체연합..	1986.06.30	55	한국가톨릭농민회
00309464	80년 이후 선전활동의 평가	문서류>문서	[미상]	미상	12	한국가톨릭농민회
00340652	[현 시기 정세에 대하여]	문서류>문서	[미상]	1986.12.15	48	영등포산업선교회
00393196	특별영치봉투	문서류>문서	박계동	1986.06.23	2	박계동
00413394	격동의 80년대를 가로지른 5·3 인천 투쟁	문서류>문서	원종찬	1987.00.00	2	이우재
00416296	조국 1987년 7·8월호 창간호	문서류>단행	조국통일북미	1987.07.04	104	김동수, 백하나

등록번호	사료명	분류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기증자
		본	주협회			
00513828	80년대이후 선전선동활동의 평가	문서류>문서	[한국가톨릭농민회]	198*.00.00	6	한국가톨릭농민회
00521514	5·3 인천시위 구속자가족의 호소문	문서류>문서	5·3인천시위구속자가족일...	1986.06.12	2	김영균
00522905	성명서[안동가톨릭농민회를 인천사태의 배후조종 세력이라 지목한 당국의 모략과 탄압에 대하여]	문서류>문서	한국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	1986.05.11	1	이상철
00522940	돌들이 외치리라-민족적 기로에 서서	문서류>문서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1986.05.30	1	이상철
00522953	선봉 제4호	문서류>정간물	반제반파쇼노동자투쟁위원..	1986.05.13	4	이상철
00524670	성명서-애국학생들의 분신투쟁정신 계승하여 민족자주·민중민주쟁취를 위한 성전에 총결기하자!	문서류>문서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1986.05.22	4	이상철
00530335	제2차 총회보고서	문서류>문서	민중불교운동연합	198*.00.00	20	김경호
00530364	민중불교 제16호	문서류>정간물	민중불교운동연합	1989.06.22	8	김경호
00536780	91 서울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 제4차 대표자회의	문서류>문서	범민족대회남측추진본부	1991.08.08	9	김금동
00574158	1986년도 인권주간 자료집-민주쟁취와 인권	문서류>문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	1986.12.07	359	한국YMCA전국연맹
00576874	韓國獄中政治犯 徐兄弟の軌跡	문서류>문서	徐君兄弟を救う會,徐君兄弟...	1975.01.25	86	Seiichi Shiryanagi
00828401	[박용길장로가 문익환목사에게 보내는 서신 1987년 1월]	문서류>문서	박용길	1987.01.09	2	박용길
00829716	의인[문익환목사 칠순 축하의 시]	문서류>문서	이병인	1987.05.28	1	박용길
00829872	[1986년 5월, 6월 문익환목사의 일지처럼 적은 메모]	문서류>문서	[문익환]	1986.06.00	1	박용길
00830026	[김동근이 문익환목사에게 보내는 경축전보]	문서류>문서	김동근	1987.07.09	3	박용길
00830028	[문익환목사에게 보내는 경축전보]	문서류>문서	[미상]	1987.07.09	2	박용길
00830029	[정대철이 문익환목사에게 보내는 경축전보]	문서류>문서	정대철	1987.07.09	2	박용길
00830030	[이상윤이 문익환목사에게 보내는 경축전보]	문서류>문서	이상윤	1987.07.09	2	박용길
00830031	[이흥주가 문익환목사에게 보내는 경축전보]	문서류>문서	이흥주	1987.07.09	2	박용길
00830032	[이해학이 문익환목사에게 보내는 경축전보]	문서류>문서	이해학	1987.07.09	2	박용길
00830033	[홍남순이 문익환목사에게 보내는 경축전보]	문서류>문서	홍남순	1987.07.09	2	박용길
00830034	[길경희가 문익환목사에게 보내는 경축전보]	문서류>문서	길경희	1987.07.09	2	박용길
00830036	[오정원이 문익환목사에게 보내는 경축전보]	문서류>문서	오정원	1987.07.10	2	박용길
00830037	[김원갑이 문익환목사에게 보내는 경축전보]	문서류>문서	김원갑	1987.07.10	2	박용길
00830040	[김동영이 문익환목사에게 보내는 경축전보]	문서류>문서	김동영	1987.07.10	2	박용길
00830041	[윤준기가 문익환목사에게 보내는 경축전보]	문서류>문서	윤준기	1987.07.10	2	박용길
00830042	[이기택이 문익환목사에게 보내는 경축전보]	문서류>문서	이기택	1987.07.10	2	박용길
00830045	[임춘원이 문익환목사에게 보내는 경축전보]	문서류>문서	임춘원	1987.07.10	2	박용길
00830047	[박한섭이 문익환목사에게 보내는 경축전보]	문서류>문서	박한섭	1987.07.10	2	박용길
00830048	[황명수가 문익환목사에게 보내는 경축전보]	문서류>문서	황명수	1987.07.10	2	박용길
00830887	구속통지서 제7158호[수신:박용길]	문서류>문서	서울특별시경찰국형사과	1986.05.24	1	박용길
00832647	고난받는 민통련과 의장 문익환목사를 위한 기도회	문서류>문서	전국민족민주운동협의회 강...	1986.10.15	2	박용길

등록번호	사료명	분류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기증자
00836182	수배자 가족들에 대한 가공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문서류>문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사...	1983.06.16	2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00842882	천사협소식 제2호	문서류>정간물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1986.06.18	8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00843337	[블랙모어 국무성 한국과장의 방한]	문서류>문서	[미상]	1987.00.00	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00847030	제안서-인천시장후보에게 인천에 민주공원 설립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성을 제안하며	문서류>문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인천연..	2002.05.16	2	한국여성단체연합
00856493	제7차 대표자 회의	문서류>문서	민자당일당독재분쇄및민중..	1990.05.14	10	한국여성단체연합
00858583	인천 민중 투쟁 경과보고서	문서류>문서	[미상]	1986.05.03	3	윤미애
00859032	고문사례	문서류>문서	인권옹호의원회	1987.00.00	72	김창희
00859214	정세분석-격동하는 '86정세, 민중과 '보수대연합'의 갈등	문서류>문서	[미상]	1986.07.00	3	김창희
00859526	[인천사태 보고서]	문서류>문서	[미상]	1986.00.00	1	김창희
00860102	[선도투쟁과 대중투쟁>정치투쟁과 경제투쟁]	문서류>문서	[민주화의길]	1986.12.18	4	김창희
00864576	구속 중인 성연스님 소식	문서류>문서	민중불교운동연합	1986.09.05	1	지선
00866672	지금 시기 우리들의 전술적 임무에 대하여	문서류>문서	[NL 자민투]	1986.05.30	30	한국출판문화운동동우회
00868784	원곡교회 교인 호소문	문서류>문서	기독교대한감리회원곡교회..	1986.12.00	4	이재윤
00869217	성연스님 및 민주인사의 전면석방을 거듭촉구한다-단식 농성을 마치며	문서류>문서	불교탄압공동대책위원회	1986.08.13	1	지선
00869957	민중불교운동연합 전 의장 여익구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함	문서류>문서	정법수호의선구자여익구씨..	1988.00.00	1	지선
00875276	무등 25호	문서류>정간물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1986.09.01	16	지선
00879157	민주강원 제2호	문서류>문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강원...	1986.05.23	4	5.18 기념재단
00883205	시국성명서-현 정권은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재야 운동단체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문서류>문서	부산민주시민협의회	1986.06.15	1	(재)전태일 재단
00884379	경북의 소리 제8호 특보	문서류>문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경북...	1986.05.10	2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00885193	서울노련에 대한 보안사의 고문탄압을 규탄한다	문서류>문서	서울노련탄압자외보안사의..	1986.05.23	2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인천5.3민주항쟁' 관련 사진 자료

등록번호	사료명	분류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기증자
00709481	수배자 석방 요구하는 5.3인천사태 수배자와 민가협 회원들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7.00.00	0	경향신문사
00711758	5.3 인천 항쟁 현장 약도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5	0	경향신문사
00915835	5.3인천민주화운동 이후 민통련 사무실	사진필름류>필름	박용수	1986.08.22	1	박용수
00709482	명동성당에서 5.3인천사태 수배자 석방 요구하는 여익구와 박계동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7.00.00	0	경향신문사
00711759	5.3 인천 항쟁 당시 시위대를 포위하고 있는 경찰병력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11760	5.3 인천 항쟁 당시 경찰 차량을 점거한 채 태극기를 들어보이는 시위대 모습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11767	5.3 인천 항쟁 당시 경찰의 최루탄 발사에 현장을 떠나는 시위 참가자들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11770	무너진 정류소를 바리케이드 삼아 시위 현장으로 진군하는 5.3 항쟁 참가자들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11772	5.3 항쟁의 격렬함을 보여주는 현장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11773	경찰병력과 격렬한 대치 상황을 보여주는 5.3 항쟁의 모습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11774	5.3 항쟁 당시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해들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11779	쓰러진 버스정류소를 바리케이드 삼아 시위 현장으로 돌진하는 5.3 항쟁 시위대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11784	5.3 인천 항쟁 관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발표하는 신민당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15	0	경향신문사
00713900	종교문화연구회와 국제기독교학생연합회가 발표한 5.3인천사태에 관해 비판하는 대자보와 이를 반박하는...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1	0	경향신문사
00740056	5.3 인천 항쟁 시위현장에서 시위자들을 강제연행하는 경찰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057	5.3 인천 항쟁 시위현장에서 화염병으로 인해 불에 타고 있는 차량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058	경찰에 맞서 투석전을 벌이고 있는 5.3 인천 항쟁 참가자들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060	5.3 인천 항쟁 시위현장을 진압하기 위한 경찰측 차량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061	5.3 인천 항쟁 시위현장 화염병으로 인해 불에 타고 있는 차량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063	5.3 인천 항쟁 와중에 경찰 페퍼프그 차량에 맞서 싸우는 시위대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065	5.3 인천 항쟁 공방전 와중에 부상을 입은 한 사람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078	신민당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5.3 인천 항쟁 현장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080	신민당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5.3 인천 항쟁의 불법이 난무한 현장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083	신민당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5.3 인천 항쟁 현장에서 파손된 차량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084	무장경찰이 쓰는 최루탄을 피하는 5.3 인천 항쟁 시위자들 모습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085	거리를 가득 메운 채 신민당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5.3 인천 항쟁 현장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086	거리를 가득 메운 채 신민당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5.3 인천 항쟁 현장 모습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090	신민당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사료명	분류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기증자
	있는 5.3 인천 항쟁 현장에서 불에 타고 있는 차량					
00740091	신민당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5.3 인천 항쟁 현장에서 불에 타고 있는 차량 모습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092	신민당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5.3 인천 항쟁 현장에서 불에 타고 있는 차량과 시위자들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096	5.3 인천 항쟁 현장에서 무장경찰과 "인천 민주적 선봉이여" 라고 쓰여진 선전물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097	각종 플래카드를 들고 신민당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5.3 인천 항쟁 현장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098	각종 플래카드를 들고 신민당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5.3 인천 항쟁 현장 모습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100	신민당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5.3 인천 항쟁 현장에서 차량을 탈취한 시위자들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101	신민당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5.3 인천 항쟁 현장에서 화염에 휩싸인 차량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102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5.3 인천 항쟁 현장에서 투석하며 진압경찰에게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103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5.3 인천 항쟁 현장에서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는 시위자들 모습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104	최루탄 가스과 돌들로 혼잡한 5.3 인천 항쟁 현장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106	신민당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5.3 인천 항쟁 현장에서 탈취한 차량을 끌고 있는 시위자들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107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5.3 인천 항쟁 현장에서 탈취한 차량을 끌고 있는 시위자들 모습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108	5.3 인천 항쟁 현장에서 불에 타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는 차량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109	신민당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5.3 인천 항쟁 현장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110	신민당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격렬한 5.3 인천 항쟁 현장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112	스크럼을 찢고 신민당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5.3 인천 항쟁 현장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113	신민당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혼잡한 5.3 인천 항쟁 현장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114	신민당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5.3 인천 항쟁 현장에서 반파쇼, 독재를 외치는 노동자들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115	시민회관 앞을 가득 메우고 신민당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5.3 인천 항쟁 현장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116	시민회관 앞에서 신민당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5.3 인천 항쟁 현장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117	5.3 인천 항쟁 현장에서 불에 탄 차량과 최루탄 가스에 고동스러위하며 자리를 피하고 있는 시민들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118	5.3 인천 항쟁 현장에서 불타고 있는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사료명	분류	생산자	생산일자	페이지	기증자
	차량과 공공기물을 방패삼아 시위하는 시위자들 모습					
00740119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5.3 인천 항쟁 현장에서 시위자들로부터 압수한 "군부독재타도" 깃발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120	5.3 인천 항쟁 현장에서 불에 타고 있는 차량과 공공기물을 방패삼아 시위하는 시위자들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121	5.3 인천 항쟁 현장에서 최루탄에 괴로워하며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아이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740122	개헌추진대회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5.3 인천 항쟁 현장에서 최루탄에 괴로워하며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사진필름류>사진	경향신문사	1986.05.03	0	경향신문사
00907029	5.3인천항쟁 다음날 모습	사진필름류>사진	정태원	1986.05.04	1	정태원
00907030	5.3인천항쟁 당시 부상을 입은 사복경찰	사진필름류>사진	정태원	1986.05.03	1	정태원
00907035	5.3인천항쟁과 관련된 성연 스님 석방 요구 시위. 조계사	사진필름류>사진	정태원	1986.08.11	1	정태원
00907036	5.3인천항쟁과 관련하여 구속된 성연 스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는 스님들	사진필름류>사진	정태원	1986.08.11	1	정태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소장 '인천5.3민주항쟁' 관련 문서 자료

코드	등록번호	자료명	생산자	생산일자
d082	131008053	5.3인천민주항쟁25주년자료집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d057	131014077	5.3인천민주화운동 21주년 기념강연회 자료집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2006/05
d061	131106068	5.3 인천 유인물 분석		
d061	131106069	5.3 인천 시위 구속자 가족의 호소문	5.3인천시위구속자가족일동	1986/06
d061	131106076	5.3 구속자 소식	5.3구속자협의회	
d061	131106082	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	5.3 민주화운동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03/05
d061	131106072	5.3인천민중항쟁을 왜곡하지 말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1986/05
g057	140630094	2004 인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제 및 5.3민주화운동 기념식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추진위	2004.05.03
g072	140707058	2005년 5.3 열사영상작업 내용 문서로 표현	강영희	2005
g072	140707081	5.3 인천 유인물 분석		
g072	140707082	5.3 인천 민중집회 진상규명에 관하여 신민당에 보내는 '서노련'의 결의	서노련	1986.05.26
g072	140707083	5.3 인천시위 구속자 가족의 호소문	5.3인천시위구속자가족일동	1986.06.12
g072	140707084	5.3 인천민중항쟁을 왜곡하지 말라-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1986.05.19
g072	140707085	5.3 인천투쟁을 운동사적 관점에서 재조명 한다.		1986
g072	140707098	5.3 인천민주화운동 21주년 기념행사 안내		2007.05.03
K074	160912026	5.3항쟁 10주년 신문 스크랩		1996.05.03
K045	160912222	5.3에서 미래로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2006.05.03
K045	160912223	다시보는 5.3인천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045	160912224	2004년 인천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제 및 5.3민주화운동 기념식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2004.05.03
K045	160912225	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	5.3민주화운동기념사업 추진위원회	2003.05.02
H037	161109055	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	5.3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2003.5.2
L011	161216001	판결문(이용주 외 9명)	인천지방법원	1986.09.26
L011	161216009	5.3인천시위 구속자에 대한 폭행, 고문사실을 폭로한다		
L011	161216015	5.3구속자 소식	5.3구속자가족협의회	
E061	161115058	운동초심모임 제17차 운영위원회		2010.04.27

- 위의 자료 목록 중 음영 처리된 것이 '오픈 아카이브'와 중복되지 않는 자료임. 이 자료를 포함하여 오픈 아카이브에서 검색되지 않은 사진 자료들이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 인천5.3민주항쟁 증언록』(제30주년 인천5.3민주항쟁계승대회조직위원회 편, 2016)에 실려 있다.

국가기록원 소장, 인천지방경찰청 '인천5.3민주항쟁' 관련 문서 자료

관리번호	기록물철 제목 (사료명)	분류 (파일명+번호)	생산자	보존기간	페이지	비고
DA1431856	"5.3시위사건종합수사상황" 외	5.3사태1	경기도경찰국	준영구	181	종합수사보고
DA1431857	"질의예상답변자료-5.3사태관련" 외	5.3사태2	경기도경찰국, 내무부 치안본부, 인천지방경찰청 등	준영구	132	답변자료
DA1431858	"종합수사보고-5.3인천폭력시위사건" 외	5.3사태3	경기도경찰국	준영구	123	종합수사보고
DA1431859	"5.3사태 송민정 문미숙 수사경위" 외	5.3사태4	부평경찰서, 부천시 형사계, 경기도경찰국	준영구	50	
DA1431860	"5.3사건 관련자 수사상황" 외	5.3사태5	경기도경찰국, 부천경찰서 등	준영구	142	
DA1431861	"민정당사 방화범 검거" 외	5.3사태6	인천동부경찰서	준영구	110	
DA1431862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외	5.3사태7	경기도경찰국	준영구	134	
DA1431863	"5.3추가 검거자 처리현황" 외	5.3사태8	부평경찰서, 부천경찰서, 인천동부경찰서 등	준영구	53	
DA1431864	"수사보고" 외	5.3사태9	인천동부경찰서	준영구	13	
DA1431865	"실황조사서(5.3시위)" 외	5.3사태 실황조사10	경기도경찰국 등	준영구	159	
DA1431866	"5.3인천소요사건 진상보고" 외	5.3사태 진상보고 10	내무부	준영구	92	
DA1431867	"5.3사건 범죄 통계 분석지" 외	5.3사태 11		준영구	70	
DA1431868	"6.18부평시위관련연행자(일반인)전과사실현황" 외	5.3사태 12	부평경찰서 형사과	준영구	141	
DA1431869	"5.3시위 관련자 처리상황" 외	5.3사태 13	경기도경, 치안본부 등	준영구	268	
DA1431870	"23개항에 대한 답변자료" 외	5.3사태 질의답변 14	인천서, 동부서, 안성서, 성남서 등	준영구	51	답변자료
DA1431871	"카도릭회관 시위관련자 검거보고" 외	5.3사태 15	인천경찰서, 경기도경찰국 등	준영구	333	
DA1431872	"5.3 인천소요사태 수사 조정(안기부)" 외	5.3사태 16	안기부 인천분실, 도경국장 등	준영구	126	
DA1431873	"피의자 신문조서(5.3사건 경찰차량 탈취 수사보고)"	5.3사태 17		준영구	190	
DA1431874	"5.3사태중점수사상황" 외	5.3사태 18	인천동부서 등	준영구	280	
DA1431875	"5.3사건 종합수사결과보고" 외	5.3사태 19	경기도경찰국 등	30년	272	종합수사보고
DA1432050	"수배 및 검거자 명부" 외	5.3수배자명 단 20	경기도경 등	준영구	254	
		10번 파일이 두 개로, 파일 수는 총 21개		합계:	3,174	

토론2

송용한(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실장)

인천5.3민주항쟁 관련 자료 해제 및 향후 과제 토론문

송용한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운영실장)

1. 들어가며

- 인천5.3민주항쟁은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이해하고,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사건임.
- 당시 자료는 주체적으로 아래로부터 민중의 요구가 무엇이며, 정치 조직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민중 조직과 정치는 어떤 괴리에 있었는지, 정치적 괴리는 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함.
- 또한 당시 자료는 민주화 과정에서 신군부 군사정권이 어떤 구조 속에서 국가기구를 이용해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고 민중을 탄압하며 국가폭력을 행사했는지를 고찰하고,
- 한국 사회에서 국가폭력이 다시 재생산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지 등의 사회적 성찰을 위한 토대 자료임.
- 인천5.3민주항쟁을 비롯해 민주화 운동 시기 자료 출처를 밝히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기도 어려운 시기. 이에 따라 민주화 이후에도 한동안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는 체계적으로 수집·보관되지 않음. 그러다 1990년대 말 경 사회적 논의를 하고 민간차원의 사료수집 운동이 일고 2000년 초에 민주화 운동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 국각가 자각하고 국가 차원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 수집 및 부가 사업 시행.
- 민주화 운동 자료는 아직 수집 단계이며, 지자체 차원의 민주화 운동 자료 수집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음.
- 발표자의 인천5.3민주항쟁 관련 자료 해제 작업은 기존에 수집된 한정된 자료로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인천5.3민주항쟁의 위치와 의미를 밝히기 위한 기초 조사로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됨.
- 발표자는 기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집 자료와 국가기록원 제공 인천지방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해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함.
- 토론자는 발표자의 발표 내용과 향후 과제로 제시한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함.
- 다만 토론자는 발표자의 발표문을 통해 드러나는 혼합형 기록 컬렉션의 한계를 짚고, 발표자가 향후 과제에서 제시한 의견 중 기록물의 기본 속성을 충족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가 특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되짚고,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았으나 향후 자료 수집 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으로 가해자 생산 자료에 대한 고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2. 혼합형 기록 컬렉션의 한계

- 발표문은 특정한 조직에서 생산된 조직형 컬렉션(인천5.3민주항쟁계승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인천지방경찰청)을 ‘인천5.3민주항쟁’이라는 주제로 구성된 상호연관 있는 다양한 조직과 출처로부터 수집한 인위적 컬렉션이 혼합된 형태의 컬렉션임.
- 여기서 기록물 각각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기록물 속에서 상호 관련을 맺고 계층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됨. 관건은 자료 간의 계층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이라 생각됨.
- 다양한 출처로부터 생산된 자료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간 관계와 입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발표자의 해제 자료는 ‘인천5.3민주항쟁계승대회조직위원회’ 라는 항쟁 주체에 의해 생산된 자료와 이와 상반된 입장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생산된 수사 자료가 교차하고 있음. 큰 틀에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의 조직에서 생산된 자료이나 인천5.3민주항쟁이라는 주제 속에서는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자료임.
- 발표자의 발표문 자료는 자료 자체의 한계에 따라 생산 조직 특성과 생산 조직 간 관계에 기반한 자료 간 관계와 위치 등에 대한 분석은 진행하지 못함. 다만 내용적으로 서로 상반된 입장의 자료임을 보여주고 있음.
- 자료는 해제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따라서 ‘인천5.3민주항쟁’과 같은 주제의 혼합형 기록 컬렉션은 자료 생산자(생산조직)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고, 이에 따른 자료 간 연결과 해제가 시도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해제 자료에서는 상반된 입장의 생산에 대한 기초 정보인 생산 시기, 입장, 맥락 등에 대한 분석과 해제가 없음.
- 발표자가 향후 과제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수집된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는 기증자 중심 컬렉션으로 생산자가 불분명한 자료가 대부분으로 생산자에 대한 해제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파악 가능한 자료는 생산자에 대한 맥락을 먼저 분석하고 위치시킬 필요가 있음.

3. 기록의 기본 속성과 출처 불명 자료 보완 필요성

- 기록의 기본 속성은 진본성(Authenticity), 무결성(Reliability), 신뢰성(Reliability), 이용가능성(Usability)이라 할 수 있음.
-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는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가 많음.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생산자나 출처를 숨겨야 했던 당시 상황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일부 자료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기증받는 과정에서 출처와 자료 생산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파악하지 않고 수집한 결과에 기인하기도 함.
- 불명확한 자료의 출처와 자료 생산의 맥락은 자료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이라는 자료의 기본 속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칫 자료로서의 가치를 잃을 수 있음.
- 발표자가 짚었듯이 향후 과제에서 출처 불명의 자료에 관한 확인 작업은 기존 수집된 자료뿐 아니라 향후 수집되는 자료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임을 토론자도 강조하고자 함.
- 민주화 운동 자료 생산 당시의 조건과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기증이나 수집 과정에서 최소한 명확한 출처를 파악할 수 있는 생산의 맥락이나 시기 등이라도 파악해야 함.

4. 가해자 생산 기록의 수집과 해제 보완 필요성

- 민주화 이전 국가기관은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라는 이름으로 각종 고문, 조작과 인권유린 등 국가폭력 자행
- 민주화 이후 2004년 이후 들어서야 국가 차원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관련 조사 및 보상 등 시행. 그러나 기존 조사는 피해자 중심의 조사로 가해자 조사와 자료 수집이 빠짐.
-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국가폭력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피해자 자료만 수집된 상황. 가해자 관련 자료는 대부분 폐기 또는 은폐. 그나마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는 왜곡, 조작 자료가 다수. 향후 이를 반박할 증언자 등이 사망하면 왜곡, 조작된 자료가 이 사회에서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위험 존재하며 이미 진행 중.
- 현재 우리는 민주화 운동 과정 자료를 모으고 있으나 정작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고문한 가해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책임자는 누구인지 모름. 더 늦기 전에 피해자 중심의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가해자 자료 수집이 병행되고 역사에 남기고 평가하는 작업을 해야 함.
- 발표자는 향후 과제에서 1980년대 중반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의 다양한 견해와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평가할 필요를 제기함.
- 여기에 더해 토론자는 안기부나 경찰 등 국가권력 기관의 입장, 국가폭력 과정에 참여한 가해자 등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재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함. 발표자가 발표문에서 '안기부 인천 분실장'이 '경찰 도경국장과 인천지검장'으로 전언통신문을 보낸 것을 밝히고 있듯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료가 만나 자료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자료 수집은 목적 의식적 과정임. 민주화운동 자료 수집 과정은 이미 민주화 운동 자료 수집이라는 목적 의식적 과정임. 기존에는 피해자 중심 자료 수집과 해제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늦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자료 수집과 해석이라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할 시점임을 강조하고자 함.

5. 나오며

-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과거 청산은 이루어질 수 없음. 이는 지체된 정의가 아닌 폐기된 정의임.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재생산되고, 민주화 이전의 과거가 다시 반복될 수도 있음.

참고자료

1. 인천5.3민주항쟁 일지	53
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활동	55
3. 인천5.3민주항쟁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소장 자료목록	56
4. 경찰자료 파일별 수록내용 목록	58

1. 인천5·3민주항쟁 관련 일지

- 1980. 05. 광주민중항쟁
- 1982. 03.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 1982. 11. 원풍모방노동조합 해체
- 1984. 09. 민청련 결성
- 1984. 03.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창립
- 1984. 09. 함평·무안농민대회
- 1984. 11. 19. 인천사회운동연합 결성
- 1984. 11. 인천지역노동자복지협의회 결성
- 1985. 02. 12. 총선에서 신민당이 다수표 획득
- 1985. 03.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결성, 신정동 목동 철거민 시위
- 1985. 04. 16. 대우자동차 임금인상 요구 파업
- 1985. 05. 23. 미문화원 점거 시위
- 1985. 06. 24. 구로지역 대우어패럴 등 7개 사업장 동맹 파업
- 1985. 08. 25.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결성

1986년

- 01. 전두환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불가 방침을 밝힘
- 02. 04. 서울대에서 15개 대학 1천여명이 '파쇼헌법철폐투쟁 및 개헌서명운동추진본부 결성식' 개최
- 02. 07.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노련) 결성
- 02. 12. 신민당과 민주협 '직선제 개헌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 시작
- 03. 05. 민통련(23개 단체)과 민주인사 303인 '군사독재 퇴진촉구와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범국민적 서명운동 선언' 발표
- 03. 11. 신민당은 '개헌추진위원회 서울지부 결성대회'를 시발로 '개헌현판식대회' 추진.
- 03. 30. 광주 개헌대회에 30여만명의 시민 집결. 각 대학교수 시국선언문 발표
- 03. 17. 신흥정밀 박영진 분신
- 04. 28. 서울대생 김세진 이재호, 전방입소훈련 거부 시위 중 “양키 고 홈” “반전반핵” 외치며 분신
- 04. 30. 전두환 정권은 청와대 3당대표 회동에서 국회가 합의한다면 임기 내 개헌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발표
- 05. 03. 인천 5·3민주항쟁
- 05. 06. 보안사, 김문수 등 서노련 활동가 6명 불법연행
- 05. 10. YMCA중등교육자협의회 산하 교사 546명, '교육민주화선언' 발표

- 05. 30. 서·인노련 소속 노동자 16명 한미은행 영등포지점 점거농성
- 06. 6~7. 권인숙이 부천서에서 5·3사건 수배자 소재 밝히기를 요구받으며 성고문 당함
- 06. 03. 서·인노련 간부 1명 구속, 3명 긴급수배
- 06. 2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 07. 03. 인천 해고노동자 권인숙, 부천서 문귀동 경장을 강제 추행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
여성단체연합 성고문대책위원회 발족
- 07. 16. 검찰, 부천서 성고문 사건 근거 없다고 수사결과 발표
- 08. 16~23. 부평 소야전기(주) 노동자 150여명 '임금인상' '보너스 400% 지급' 등을 요구
하며 식당점거 농성
- 08. 31. 전YH노조원 주최로 영등포성문밖교회에서 개최하려던 '김경숙 추도식'이 경찰
방해로 무산됨
- 09. 6. 월간 『말』 특집호 「보도지침」 발간
- 09. 20~10. 5. 제10회 서울아시안게임 개최
- 10. 17. 검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라고 발언한 신
민당 유성환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10. 18.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전노추) 구성혐의로 7명 구속, 107명 수배
- 10. 19.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500여명 참가해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결성 집회 개최
- 10. 20. 경찰, 구국학련의 상부조직 '노동해방전선' 적발 발표
- 10. 24. 소위 마르크스·레닌당 결성 기도사건 발표
- 10. 28. 건대사건, 총연행자 1,525명, 구속자 1,295명
- 11. 26. 정부, 북한의 금강산댐 위협에 대응한다며 평화의 댐 건설 발표
- 11. 29. 서울개헌대회, 경찰봉쇄로 무산, 산발적 가두시위로 2,200명 연행
- 11. 30. 고 전태일의 16주기 추도식을 마석 모란공원 묘지에서 300여명이 참가해 거행

1987년

- 01. 14. 서울대생 박종철,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물고문으로 사망
- 03. 01. 인천지역 노동자 1천여 명이 부천 석왕사에서 3·1절 집회 뒤 부천역에서 가두
시위
- 03. 27. 인천 세진음향, 임금인상 요구 가두시위
- 04. 13. 4·13호헌조치
- 04. 23. 인천 경동산업 노동자 일당 1,350원 인상, 보너스 400% 지급,
가족수당 10,000원 지급 요구하며 투쟁 돌입
- 04. 2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4·13호헌조치 지지 성명 발표
- 05. 01. 신민당 탈당의원이 통일민주당 창당(김영삼 총재)
- 05. 03. 부평 샘터교회에서 인천기노련 주최로 노동자 학생 400여명이 메이데이 행사

- 주최.
- 05. 06. 서울지역 23개 대학 대표들이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대협) 결성
 - 05. 27.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발족
 - 06. 11. 19. 신호수(1962. 1생)가 인천 가스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 서부경찰서 대공과 소속 경찰에 연행당해 고향인 전남 여천 대미산 중턱의 동굴에서 시체로 발견됨
 - 1987. 06. 6월민주항쟁
 - 1987. 07~09. 노동자대투쟁

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활동

- 2004. 8. 20 안상수 인천시장 면담, 실무진 구체 계획 협의
- 10. 12 인천시'인천민주공원 및 회관 건립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안)'제출
- 10. 18 시민단체, 인천시 TF팀 구성
- 2005. 11. 25 인천민주공원 및 민주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준비모임 구성
〈공동추진위원장 김병상 신부, 안상수 시장, 박승숙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 12. 22 남구청장 면담, 주안 예비군 훈련장으로 공원 유치 계획 설명
- 12. 23 안상수 인천시장 면담, 남구청장 유치 계획에 동의
- 2006 인천민주공원 및 민주회관 건립추진위원회(준) 구성
〈공동준비위원장/ 김병상 신부, 최성규 목사, 안상수 인천시장, 박창규 인천시의회 의장〉
- 2012. 1.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지원 조례 제정
- 2016. 9. 인천시의회 인천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8. 2 ~ 9.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가칭) 건립 6차 단체대표자회의 진행
- 4. 1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가칭) 건립 추진위원회〉구성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개정운동을 시작하며 기자회견
- 5. 17. 지방선거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정책 협약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시장 후보
- 10. 26.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가칭)건립 추진을 위한 집담회
- 11.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 12. 11.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가칭) 건립 추진을 위한 토론회
- 2019. 03. 26.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가칭)건립 추진위원회 출범식
- 06. 24 토론회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개념정리에 대하여〉
- 08. 12~16 사진으로 만나는 인천민주화운동 & 시민운동 전시

2020. 04 제21대 국회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에 관한 의견서
 05~10.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06~12.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필요성을 알리는 릴레이 캠페인
 10~11. 민주야 놀자! UCC 공모전
 12. 15 인천5.3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3. 인천5.3민주항쟁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소장 자료 목록

d082	131008053	5.3인천민주항쟁25주년자료집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d057	131014077	5.3인천민주화운동 21주년 기념강연회 자료집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2006/05
d061	131106068	5.3 인천 유인물 분석		
d061	131106069	5.3 인천 시위 구속자 가족의 호소문	5.3인천시위구속자가족일동	1986/06
d061	131106076	5.3 구속자 소식	5.3구속자협의회	
d061	131106082	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	5.3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추진위원회	2003/05
d061	131106072	5.3인천민중항쟁을 왜곡하지 말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1986/05
g057	140630094	2004 인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제 및 5.3민주화운동 기념식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추진위	2004.05.03
g072	140707058	2005년 5.3 열사영상작업 내용 문서로 표현	강영희	2005
g072	140707081	5.3 인천 유인물 분석		
g072	140707082	5.3 인천 민중집회 진상규명에 관하여 신민당에 보내는 '서노련'의 결의	서노련	1986.05.26
g072	140707083	5.3 인천시위 구속자 가족의 호소문	5.3인천시위구속자가족일동	1986.06.12
g072	140707084	5.3 인천민중항쟁,을 왜곡하지 말라-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1986.05.19
g072	140707085	5.3 인천투쟁을 운동사적 관점에서 재조명 한다.		1986
g072	140707098	5.3 인천민주화운동 21주년 기념행사 안내		2007.05.03
K074	160912026	5.3항쟁 10주년 신문 스크랩		1996.05.03
K045	160912222	5.3에서 미래로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2006.05.03
K045	160912223	다시보는 5.3인천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045	160912224	2004년 인천민족민주열사.희생자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2004.05.03

		추모제 및 5.3민주화운동 기념식		
K045	160912225	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	5.3민주화운동기념사업 추진위원회	2003.05.02
H037	161109055	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	5.3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2003.5.2
L011	161216001	판결문(이용주 외 9명	인천지방법원	1986.09.26
L011	161216009	5.3인천시위 구속자에 대한 폭행, 고문사실을 폭로한다		
L011	161216015	5.3구속자 소식	5.3구속자가족협의회	
E061	161115058	운동초심모임 제17차 운영위원회		2010.04.27

4. 인천5.3민주항쟁 관련 경찰측 자료

파일번호	주요내용	비고
1	「5.3시위사건종합수사상황」(경기도 경찰국, 5.12) 「5.3사건주요수사상황」(경기도 경찰국, 5.10) 「수사보고」(경기도경찰국, 5.11) -5.3시위사건 수사상황, 검거대상자 (수사과) -동부서, 민민투조직도 -부평서 「5.3인천시위관련자 수사상황보고」(경기도경찰국, 86.5.8) -민민투계보도 -5.3사건관련시위계보 「종합수사보고」(경기도경수사과, 1986.5.4.) ⁸⁾ -시위에 관련 연행자 조사결과 (ABCD구분) 「5.3사건 종합수사결과보고」(경기도경찰국, 1986. 5.20) ⁹⁾	
2	「질의예상답변자료-5.3사태관련」(의혹, 고문사실등) 「인천사태인천소재배후조직규명수사계획」(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주요수배자, 주요사건 「민민투 등 용공지하조직 수사계획하달」(내무부, 86.5.1) ¹⁰⁾ 「진상보고」-박병무, 한희석, 왕주형 구타 물고문 사건. 전미영 성추행 고문 관련 진술서	
3	「종합수사보고-5.3인천폭력시위사건」(경기도경찰국, 1986.5.5.) ¹¹⁾ -「5.3인천시위사건 관련 연행조사자 처리방안 검토자료」 ¹²⁾	
4	5.3사태 송민정 문미숙 수사경위 (부천서, 86.7.31) ¹³⁾ 인천사태관련구속자 석방상황 (1986.8.1.)-문미숙의 12명 배영미에 대한 대공분실 조사 상황 (86.7.23)-부천서 -숙명여대, 좌경사건, 노동야학, 위장취업, 부천서 점거농성 권인숙의 변호인접견시 연동에 대한 진상보고 (7.23) 인천지방검찰청 방화사건 수사상황(1986.7.28.)-부천서 성고문 항의 부천경찰서 농성사건 민중기 모, 이상영누나 등 16인 권인숙의 변호인접견시 연동에 대한 진상보고 (7.23)-배영미 가혹행위, 성추행 위협 건 변호사에 제보..	
5	5.3사건 관련자 수사상황 (부천, 7.21): 수배자 검거 김사무엘(장신대) 언더 왕주현에 대한 고문 사실 여부 의견서: 온태희(신민당원) 황연구 이배호, 소미화(학생) 부인지역연합민민투계보 5.3사건수사상황보고-제선합보(부천, 1986.5.11) 5.3사건수사상황보고 제4보, (부천, 1986.5.10.) 검거보고 (부천, 1986.5.10.) 한생현(장신대), 김애경 장신대 5.3인천시위사건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 (부천서) 5.3사건 수사상황보고 제2보 (부천경찰서, 1986.5.8.) 5.3사건 수사상황보고 제3보 (부천경찰서, 1986.5.9.) 5.3사건 수사상황보고 제 보 (부천경찰서, 1986.5..) 제1보? 「중점수사사항」 현장 투석조, 진압전경폭행자	
6	민정당사 방화범 검거(1986.5.22.) 이상명(인하대 씨클연합회장) 5.3시위관련자 박종문 이상명 이용주 조사경위보고(인천동부경찰서,1986.6.16.) -피의자 신문조사 -진술서	
7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13) 시위관련연행자 조치상황(수사과, 1986.5.12.)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21)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19)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18) 프랑카드 등 선전문 분석 (경기도경, 5.16)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17)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16) 일보: 시위관련연행자조치상황(수사과, 1986. 5.15/14/13/12/11/10/9)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15)	

파일번호	주요내용	비고
	<p>시위관련연행자조치상황(수사과, 1986. 5.14)/13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14)/13/10/9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9)¹⁴⁾ -자수 이상명 진술서 -이용주 검거 보고(1986.5.25.)¹⁵⁾ -검거 이용주 진술서</p>	
8	<p>5.3추가 검거자 처리현황(경기도경국장, 86.5.27) -이재영(인하대), 이상명(인하대), 이용주(인하대) 5.3시위추가점거자수사상황(인천경찰서, 1986.5.26.) -권오광(해고근로자), 강권구(해고자), 김윤기(안동대) 박병규(안동대), 박부경(홍익대) 김수영(연세대) 이철숙(안동대) 송광석(인하대) 이재길(안동대) 이용주(인하대) 5.3사건 추가검거 수사상황 12명 (인천동부경찰서) 5.3사건 추가검거자 수사상황(부평경찰서, 1986.5.26.) -이종태(교원대, 노동해방동맹) 임명빈(성대, 노동해방동맹) 5.3사건 추가검거자 수사상황(부천경찰서) -김신실(장신대) 우제구(민통련) 한생현(장신대)</p>	
9	<p>신민당 당원 김노진 로얄 승용차 방화소실 사건(1986.5.6.)¹⁶⁾ 인천동부경찰서</p>	
10	<p>「5.3인천소요사건 진상보고」 (내무부, -5.3행사사건 상황도 (상세) 단체별 구호 및 플래카드, 유인물 제목, 피해상황 「인천소요사건중간수사발표」(대검.86.5.19)¹⁷⁾ 「5.19 대검발표 수사내용의 특이점」(경기도 경찰국) 실황조사서(경기도경 5.28)¹⁸⁾ 신한민주당행사진행</p>	
11	<p>김천석 연세대 민민투 참가 배경 (민민학련, 민민노투위) 연대 민민투 인천시위진행상황 진술서 (86.5.20/ 가장 상세!)¹⁹⁾</p>	
12	<p>6.18부평시위관련연행자(일반인)전과사실현황 (1987.7.9.): 6.18~6.19 새벽 (291명 연행, 전과자 35) -인천동부경찰서 291명 -부평경찰서 211명 6.18 부평시위 연행자 총 661명 -인천경찰서 159명 부평시가지사위기도사건 발생(종합) 86년 11월 22일 16:05, 북구 부평동 부평시장입구, 인천대 신현호 외 학생 3명, 장기집권확책하는 연속정권 타도하자, 유인물 100매, 살포 기습시위발생,부평동 대한극장 앞 (1986.8. 17. 1936~20:20) ²⁰⁾ 「5.3사태 구속자 가족동향보고(부평서, 1986.6.27.) 「5.3시위사건 수사」(부평경찰서,)김중성, 황광우 인노투 관련자 (34명) 인천노북²¹⁾ 수사사항 (양승조,) -인노연 조직도 5.3시위관련 수배자 검거 보고(1986.5.17.) 이진권 서울대 5.3시위사건 수사상황보고- 제7보 (부평경찰서, 1986.5.1.?) 라면상자 출처에 대한 수사상황보고 박명무(인노련)²²⁾ 5.3시위사건 수사상황보고- 제6보 (부평경찰서, 1986.5.13.) -민불련 관련자 수사상황 서동석등 서울대 씨클조직 및 연계 현황 이보용 소지 메모 수사보고 (행사일정) 시위준비물에 대한 수사사항(프랑카드 제작 시위참여) - 박병무, 서동석 5.3시위사건 수사상황보고- 제5보 (부평경찰서, 1986.5.11.) 조직계보도 (부평경찰서) 민불련, 인노련, 서울대연극회, 연세대 공대 언더조직 5.3시위사건 수사상황보고- 제4보 (부평경찰서, 1986.5.10.) 5.3시위사건 수사보고 (부평경찰서, 1986.5.9.)</p>	
13	<p>5.3시위관련자처리상황(인천, 7.30)</p>	

파일번호	주요내용	비고
	<p>5.3사건수배자검거보고(인천,7.26) : 유원모(안동대졸) 김윤태(고려대 총학생회장), 진철승(민불련 문화부 간사, 7.7) -부천경찰서 정영철 검거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21)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19) 신민당 김동주 의원 질의자료 입수(6.15) 신민중앙당사 농서 관련 동향²³⁾ 5.3시위관련 수감자 신민당 의원 접견 대화 내용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14/6.13/12/11/10/9/8/7/6/5/4/3/2/1/5.31/30/29/28/27/26/25/24/23/22/20)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13)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12)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11)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10)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9)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8)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7)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6) 수사보고(서충익) 동부서, 1986.6.7. 수사보고(박동규) 광명서, 1986.5.31. /황운성, 김정호 인천지검구소사건송치현황 (1986.5.31.) 총구속123, 구속기소 35(소요죄 32명, 집시법3명,) 기소유예 86명 5.3시위관련자에 대한 고문사실 여부: 고문가혹행위 일절 없었음.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4)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3)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2) 5.3인천소요 및 민민투 관련자 수사에 따른 추가 지시(경기도경찰국장, 5.28)²⁴⁾ 장기표 수사상황 (상세 27쪽)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6.1) 5.3시위사건관련자에 대한 수사상황보고지시(86.5.27)²⁵⁾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29)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28)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27) 5.3인천시위관련자수사상황보고 (경기도경, 5.26) 추가검거자수사상황(동부, 5.23) 이상명(인하대) 구속 송광석(인하대,무역2) 훈방 조철희, 이영호 등 5.3사건수사보고 -「사건시위계획」, 시위옹구제작등 상황, 민정당사 방화사건 5.3 仁川騷擾搜查 關係官 會議 資料 (치안본부, 1986.5.17.) -對外祕 5.3인천사건수사종합보고 (대공수사단, 5.17)²⁶⁾ 5.3인천소요사태 미검자 명단(52명, 대공수사단, 5.17) 시위장소 및 시간별 검거자 현황 보고사항 (미상, 5.16)-개략적 보고</p>	
14	<p>23개항에 대한 답변자료(인천사태관련) 답10: 민통련은 별도의 '시민대회' 개최계획.</p>	
15	<p>집시법위반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인천카토릭회관 (인천서, 1986.12.14.) 장신영, 백도현, 김종일, 조규선 반제동맹수배자검거보고 (동부서, 86.12.13)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보고 (인천경찰서, 86.12.2)²⁷⁾ 부평대한빌딩옥상 기습시위관련자 수사보고 (인천서, 86년 11.28)-윤성학외 7명 인천시위관련자 신병처리 결과보고 (인천서, 86.11.15)²⁸⁾ 집시법위반 사건 검거보고 (86.10.30) -한기인 구속영장집행상황보고 (안성서, 86.10.30) 미림극장앞 시위관련 관련자 조사보고(인천, 86.9.28)²⁹⁾ 성남시가지 기습시위 발생상황(성남, 86.10.1)³⁰⁾ 동인천미림극장 집시법위반 피의자 검거(동부서,86년 9.28)³¹⁾ 인하대 후문 집시법 위반, 구속1명, 구류5명, 훈방3명</p>	<p>이남희 민통련 서울지부 조직부 간사</p>

파일번호	주요내용	비고
	<p>(인천서, 86년 9월 25일)³²⁾ 특수공우집행 방해, 동차사상 피의사건, 인하대 후분 아시안게임 저지투쟁위원회 화염병 투척 신철호 (1986.9.22.)³³⁾ 인하대 총학생회발대식후 시위사건(인천서, 1986. 9.11) 이경주³⁴⁾, 이호성, 김상철 집시법위반(화성경찰서, 9.20) 수원역전 한신대 500명시위 인하대 시위관련자 조사결과 보고 (1986.9.11.), 이범윤 인하대 민주광장 1500명 시위 민중생명위협하는 아시안게임 저지하자... <수배자 검거보고> 유원모, 김윤태(고려대 총학생회장)³⁵⁾ 진철승(민불련 문화부 간사) 이건준(서울대 총연극반), 이용주(인하대)³⁶⁾ 이재길(안동대) 김수영(연세대) 박부경(홍익대)³⁷⁾, 박현정(성신여대 민민투) 오은실(성신여대) 이철숙, 박병규(안동대) 5.3시위 관련자 수사상황 (인천경찰서, 1986.5) 5.3시위관련자종합수사상황 (인천경찰서, 1986.5.13.) -집중수사대상(송대현)수사보고 (인천서, 5.13) 정재익등 시위 준비물 제작 수사 5.3시위관련자수사상황 (인천경찰서, 5.11) -유형별통계, 안동교수카농수사상황, 조직단체계보 5.3시위관련자수사상황 (인천경찰서, 5.10) 5.3시위관련자 검거보고(추가) (5월9일) : 권오광, 강권구, 김윤기, 피의자 정재익, 제성민 수사상황 (인천서, 5.9) 5.3시위관련자 수사보고 (인천경찰서, 5월9일)³⁸⁾</p>	
16	<p>「5.3인천소요사태수사조정」(안기부, 5.7)³⁹⁾ 「전언통신문, 5.3인천소요사태 수사 조정」(안기부 인천분실장, 1986.5.8.) 「구속수사통보」(안전기획부, 1986.5.7.)⁴⁰⁾ 「전언통신문」 구속수사통보 (인화공사, 86.5.7. 22:00)⁴¹⁾ 「5.3사건 수사상황보고」 (부천경찰서, 1986.5)⁴²⁾ 「배후조직계보」 「연행자 수사결과」 「5.3행사 시위관련 연행자 분석 현황」 직업별, 학교별 310명 분석⁴³⁾ 「연행학생 및 근로자 명단보고」 (동부서, 5.4) 「5.3시위사건 종합수사보고서 사본1부」 (부평서, 5.4) -분류표 총 42명</p>	
17	<p>피의자 신문조서</p>	
18	<p>「5.3사태중점수사상황」 (인천동부경찰서, 5.14) 「5.3사태종합수사보고」 (인천동부경찰서, 5.13) -「주안남동성당과계수사」 「5.3시위구속자중간수사상황」(인천동부서, 5.11) -「인천대학교배후세력계보도」, 중앙대, 「5.3사태추가검거자 수사보고」(인천동부서, 5.11) -검거인원현황등 통계, 배후세력 계보 -「5.3시위관련구속자현황」, -5.3사태관련수배자명부 -5.3시위구속자중점수사보고 -주안성당, 민정당사 방화, 「5.3시위구속자중점수사보고」 (인천동부경찰서, 5.10) -수배자명부 「5.3시위구속자중점수사보고」 (인천동부경찰서, 5.9) 「5.3시위관련자 수사결과 보고」(동부서-경기도지사, 경찰국장, 1986.5.10.) 「5.3사태중점수사상황」2 (인천동부경찰서, 5.14) 「기습시위기도관련자수사상황결과보고」 (동부서, 1986.9.30.) 「5.3사태관련자국회답변자료」 (인천경찰서장, 1986.8.2.) -5.3사태관련자 처리상황부(인천동부경찰서/부평경찰서)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등 발생 검거보고」(인천동부경찰서, 1986.11.3. 인천대학원민주화투쟁) 「5.3사태관련수배자 검거보고, 자수, 이재훈」(동부경찰서, 1986.8.9.)</p>	<p>-인하대생 상세한 수사 자료</p>

파일번호	주요내용	비고
	「5.3구속자가족협의회, 구속자 소식」 「관련자조사, 박종문, 이상명, 이용주」	
19	「5.3인천폭력시위사건 종합수사보고」(경기도경찰국,1986.5.5.) ⁴⁴⁾ 구속자 명부 5.3시위사건 종합수사상황(경기도경찰국장,1986. 5.13) 주안성당 준비상황도, 인노련 시위상황도,화염병 깃발 제작 참고도,장소별 검거자 현황, 탁지일 등 국가전복 공산주의 사상교육, 피의자 시위계획도, 유인물 분석 내용 별 명의별(27), 유인물 상세분석표(39종) 5.3사건 종합수사결과보고(경기도경, 1986.5.16.) -민동련 등 배후조직도 「5.3사건 종합수사결과보고」(경기도경, 1986.5.20.) -검거자 처리현황, 조직 단체, 직업 현황	
20	「구속기소자현황 및 경찰의견」(경기도경 수사과, 1986.6.15.) 「5.3시위사건 관련 구속기소자명단」(수사과, 1986.5.30.) 「시위관련연행자 조치상황」(수사과, 1986.5.12.) 「5.3시위사건 종합수사상황」(경기도경찰국, 1986.5.12.) 「5.3시위사건종합수사상황」(경기도경찰국, 1986.5.13.) -「국회답변자료-5.3시위관련」 -「시위관련연행자 조치상황, 일보」 -「피의자 분석표」(구속, 불구속, 즉심 161명) -「5.3사건관련 시위 계보」(민동련, 정재익배후,고려대 총학,성신여대 자민투,동국대,인천대,중앙대,민불련, 인노련,서울대연극회,연세대 공대 언더,장신대언더 「구속피의자 身柄引渡 현황」(경기도경찰국, 1986.6.) 「5.3시위사건관련 구속자기소자 명단」(경기도경, 1986.5.30.) ⁴⁵⁾ -「시위관련 연행자 처리현황」 「주요수배자 명부」 경기도경찰국장, 1986.5.14 「수배 및 검거자 명단」(인천시경 수사과, 1986.5.19.) 5.3연관수배자 51명, 민민투 수배자 「5.3인천시위사건 수배검거자 명단」,74명(경기도 경찰국, 1986.5.20.) -미검자 명단(52명), 「5.3인천소요사건미검자명단」 51명(경기도경찰국, 1986.5.18.) 「수배자전담수사반 편성 명단」 경기도경찰국, 1986.5	

- 8) 사건명: 신한민주당 경인지부 개헌추진 결성 대회장 폭력시위사건? 적용법조: 적용법조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1항, 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제3조1항, 「형법제 144조 2항(특수공무방해, 동제164조(현주 건조물 방화), 동제165조(공용건조물 방화), 동제367조(공익 건조물 손괴), 동제369조(특수손괴) -도로교통법 제63조 등을 적용 방침/
- 9) 김성택(연세대, 민민투부위원장)을 안기부가, 오희숙(연세대 민민투위원)은 대공수사단이 직접 검거했다는 기록
- 10) 5.1. 발신, 5/6 접수?? 최근 국가전복기도, 반미등 극렬지위를주도하고 있는 '민민투' 등 용공지하조직에 대한 수사계획을 별첨과 같이 하달하니 보안에 유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별첨 민민투등 용공지하조직 수사계획 1부, 검거대상자 38명,
- 11) 사건명: 신한민주당 경인지부 개헌추진 결성 대회장 폭력시위사건
- 12) 연행자 319명 명부 (가장 충실함)
- 13) 문미숙, 송민정 등은 5.3인천 시위에 적극 가담하고 서울로 귀가하면서 부천역에 하차하여 부천역전에서 약20명과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다 동일 20:00경 검거 (「인천5.3사태관련 여자피의자에 대한 동향보고」, 부천경찰서, 1986.7.28.)
- 14) 중앙대 정외과 2년 홍동호 신문결과 : 이번 시위는 민민투가 노동자와 연계하여 벌이는 시위이다. 시위용품은 인노련에서 준비했으니 소지하지 말 것. 가두시위하다 민정당사 습격하되... 김종태의 3인, 노동자해방동맹은 <노동자해방선언> 반미 유인물 2천매 살포
- 15) 후배 박종민
- 16) 신민당에 대한 배신감의 표현
- 17) 체제전복을 위한 결정적인 투쟁의 날로 정하고 치밀한 준비로 치안기능을 마비 시키고 이를 이용해서 민중봉기를 유발하려 한 사건
- 18) 자세한 현장 지도 첨부
- 19) 집회명: 광주학살 원흉 미제축출과 파쇼타도 및 헌정회의 쟁취를 위한 **법민중 결기대회** /주최 전국민족민주학생연맹, 민족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 20) 고대생 등 100명,에스컴 쪽 화염병 투척, "미제국주의 축출하자, 독재정권 타도하자" 구호 부평역쪽 행진.. 헌법특위 분석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41명 검거, 고려대 서울대 인하대, 연세대, 경희대, 외대 성신여대, 동국대, 무직 (1시간 가투, 중요한 시위투쟁임)
- 21) 한덕희, 박문식, 김일섭, 김진국
- 22) 임인구 가에 숨겼던 라면상자 5개 관련 수사
- 23) 관제데모 조작설. 군중홍분용 가스차 진입,
- 24) 소위 민민투는 용공이적단체이므로 각 대학별로 결성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 등
- 25) 수배자 검거 경찰서는 검거상황을 즉보할 것, 검거 피의자 수사상황은 매일 15:00 한 서면보고할 것
- 26) 민민학련 기관지 「민주선언」/ 민민투 4.22 광운대 비마상앞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민민투 위원장 회합, 민민학련 첫 투쟁 대대적 준비 결

- 진압경찰병력: 실황조사서 (경기도경) 경기도 자체인력 35개중대 4,690명
지원인력 45개중대 6,030명 / -소계 80개 중대 10,720명
- 시위군중: 시위군중 10,000명(민통련 200명 포함)-「실황조사서」, 경기도경찰국

■ 반미구호

-한미은행 점거 농성, 미문화원 점거농성, 버거킹 점거사건
주요구호

1. 방송
2. “광주학살 자행한 군사독재정권 타도, 군사독재 몰아내어 민주헌법 쟁취하자”

-
- 정, 4.29 홍대 학생회관에서 서울대, 연대, 성대, 이대 민민투위원 참석, 시위계획 모의, 인천현장 답사후 확정/5.2일 홍대에서 재회합, 5.3참가시 역할 임무 확정
- 27)윤성학,양승전,이장수,박현준,이양일,김홍춘,현미숙,임현주(반미미족해방 반파쇼민주쟁취투쟁연합결성?)
 - 28) 11월 13일, 노학대동계 폐막후 시위, 남상민, 유인중
 - 29) 아시안게임저지 기습시위 백성화 외 40명
 - 30) 아시안게임 분쇄하고 헌제민회 쟁취하자 (성남노동자투쟁연합, 6개대학 50명)
 - 31) 서강대 박웅희 외 17명, 화염병 213개, 유인물 1천매, 아세아네임 속지말고 집권연장 분쇄하자.
 - 32) 구속 이원용, 구류 신정철 조기완 박기홍 조재운 정상용..
 - 33) 민중기간 정치놀음 헌법특위 분쇄하자 구호 외치며 학내 시위, (신정철, 조기완, 박기홍, 조재운,김상룡, 이원용, 김치욱, 공영진, 백승일)
 - 34) 86.5.2 부평공단파출소 기습 가두시위 가담, 부평경찰서 검거 5.4일 구류7일, 이호성은 85.4.29 부천역곡역앞 역곡파출소 기습 가두시위 가담 부천경찰서 구류 3일
 - 35)‘인천5.3민중대회’로 인식하고 고려대생동원 :
 - 36)주상연과 5/21,15:00,부평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주상연(경영3제적)과 접촉,국문1년 박종민집에서 검거
 - 37) 무협의자 수배 사건
 - 38) 민민투공동의장단 시위계획 (연세대, 서울대, 성대 이대)
 - 39) “1.5.3인천사태를 계기로 전국에 산재한 좌경성향 불순단체 실상규명함에 있어 구속자를 대상으로 소요의 배후지령자, 불순단체간부, 연계조직 등을 발본색원“
 - 40) 5.3인천 시위와 관련 검거된 다음 5명에 대하여 구속수사토록 협의되었음(동부1, 부천1, 부평3): 조은숙, 우제구./부평: 이종태,임명빈, 김현애
 - 41) 각경찰서에서 검거한 다음 사람에게 대하여 검거 경찰서별로 구속 수사 통보합니다. (22:10, 전통하달 동부 박, 부천 이, 부평 천)
 - 42) 김현태 범죄사실(16쪽)에 민민투, 자민투에 각각 가입한 간부로서... 최인호 서울대 재학증인자로 동대학교 민민투 자민투에 각각 가입하고
 - ...
 - 43) 대공분실 처리 명단 : 김현대, 정재익, 이덕희, 윤영민
 - 44) 적용법조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1항, 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제3조1항, 「형법제 144조 2항(특수공무방해, 동제164조(현주 건조물 방화), 동제165조(공용건조물 방화), 동제367조(공익 건조물 손괴), 동제369조(특수손괴) -도로교통법 제 63조 등을 적용 방침// 미국은 핵무기를 철수하라, 미일외세 물러가라 며 화형식과 성조기를 불태우는 등 반미 반일적인 과격 행동이었음
 - 45) 구속자 57명에게 소요죄를 적용 기소하고 있다!